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일 시 | 2015년 10월 22일(목) 13:40

장 소 | 송도컨벤시아 113호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한국도서관협회



목 차

【들어가는 말】.....	1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을 열며	3
【포럼 개요】.....	5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개요	7
【주제 발표】.....	9
인문학자가 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11
▶ 성해영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20
▶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1」	
- 역사에 길을 묻는 영주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33
▶ 장사년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관장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2」	
-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소속 도서관을 중심으로	56
▶ 송영숙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관장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전망과 제언	92
▶ 이상복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토론문】.....	97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토론문	99
▶ 송치욱 도서관발전재단 기획위원	



공공도서관 **기원** 창

들어가는 말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을 열며

“도서관, 인문을 묻다”

도서관 인문학 포럼이 세 번째다. 첫 회에는 인문학의 의미를 묻고, 종전에 시행했던 길 위의 인문학을 평가해보고, 도서관의 역할과 인문학과의 관계를 논의했다. 원론적인 질문과 토론을 했던 첫 회에 이어, 작년에는 “인문학, 삶의 무늬를 바꾸다”라는 타이틀로 도서관 현장을 살펴보고자 했다. 참여 주민들, 참여 강사들, 도서관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연 인문학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을 좀더 폭넓은 시각에서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해보자는 게 취지다. 그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또는 사서가 주재한다는 실천적 관점을 확보하자는 뜻이다. 그것은 도서관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재인식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인문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당혹스런 경우가 없지 않다. 전통의 문·사·철에 제한하거나 학교제도상 인문대학의 범위로 좁힐 것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인문학이란 단어보다 인문정신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이런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는 학교의 인문학보다 범위가 넓다.

그런가 하면 유행에 편승한 ‘유사인문학’은 가려내야 한다. 이른바 ‘취업 인문학’도 그 일례다. 다이제스트식으로 가공한 얇고 개별적인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우리 사회가 인문학에 요구하는 취지에 부응할 수 없다. 철학자 러셀이 말했던 것처럼, 철학 개설서 여러 권을 읽어 피상적 지식을 쌓는



것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해 고민한 한 권의 철학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돈 되는 인문학을 강조하기도 한다. 부수적으로 돈이 된다면 마다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인문학의 본령은 아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 길, 인문학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길’이란 것이 프로그램의 개성과 활력을 확보해준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세상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도서관과 책이 거점이요 출발점이지만 여기에 갇힐 것은 아니다. 그 안과 밖을 넘나들 필요가 있다.

우리 전통 속에서도 ‘길 위의 인문학’ 사례를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금강산 유람이 마음을 살찌게 해주는 것이라 했다. 연암 박지원은 먼저 중국을 다녀온 홍대용, 박제가 등의 중국여행기를 열심히 듣고 읽었다. 그 후 직접 중국여행에 올라 <열하일기>라는 위대한 경세서이자 인문서를 남겼다. 전통 속 ‘길 위의 인문학’을 향유한 사람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지역의 문화·교육의 거점인 도서관에서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어느 도서관 관장으로부터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체계적 독서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에서의 도서구입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도서관은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장소다. 인문학의 내용, 활동면에서 긴밀하게 연관된다. 도서관이 주민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인문학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주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도서관 사서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책과 저자들을 엮어내는 기획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럼이 이런 노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본부



포럼 개요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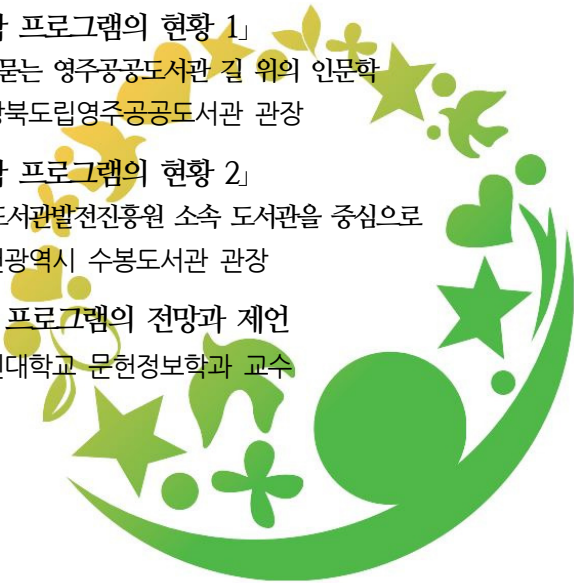
- ▶ 주 제 :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 ▶ 일 시 : 2015년 10월 22일(목) 13:40 ~ 16:00
-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113호
-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 주 관 : 한국도서관협회
- ▶ 진행순서

시간		내용	주제 및 발표자 토론자
5'	13:40~13:45	인사말	
15'	13:45~14:00	주제발표	“인문학자가 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성해영(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15'	14:00~14:15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	14:15~14:30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1” 장사년(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관장)
15'	14:30~14:45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2” 송영숙(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관장)
15'	14:45~15:00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전망과 제언” 이상복(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5'	15:00~15:05	휴식 및 장내정리	
25'	15:05~15:30	종합토론	토론 1 “인문학자가 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방향” 발표자: 성해영(전 기획위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발표자: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우응순(2015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기획위원)
			토론 2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과 제언” 발표자: 장사년(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관장) 발표자: 송영숙(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관장) 발표자: 이상복(전 기획위원,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토론자: 송치욱(전 기획위원, 도서관발전재단 기획위원)
5'	15:55~16:00	폐막	



주제 발표

- 인문학자가 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성해영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정광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1」
- 역사에 길을 묻는 영주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장사년 |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관장
-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2」
-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소속 도서관을 중심으로
송영숙 |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관장
-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전망과 제언
이상복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인문학자가 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성해영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I. 서론

○ ‘인문학자가 본’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 이 발표에서의 주된 논점은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중요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인문학

- 인문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 양상이 인문학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특성은 “고립과 단절”로 볼 수 있다. 한 사람으로만 구성된 1인 가구의 비율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¹⁾ 동시에 초혼의 시점 역시 늦어져 가고,²⁾ 결혼을 생각

1)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에 전체 가구 수의 9%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는 16%로, 2014년에는 26%로 증가했다. 통계청은 2015년에 1인 가구 비중이 27.1%를 찍은 후 2035년에는 3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초혼의 경우 평균 연령은 1991년에 남성(28.38세), 여성(25.58세)에서 2014년에는 남성(32.4세), 여성(29.8세)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않는 사람 역시 대단히 증가했다.³⁾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으며,⁴⁾ 이혼율 역시 높아졌다.⁵⁾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비율 역시 현저하게 줄었다.⁶⁾ 게다가 홀로 세상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한 지 한참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孤獨死)의 사례 역시 우리 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⁷⁾

- 더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하는 자살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⁸⁾ 왕따와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청소년들,⁹⁾ 취직이 안 된 탓에 삶의 희망을 잃고 동반 자살하는 젊은이들,¹⁰⁾ 생계형 빈곤으로 진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빈곤층,¹¹⁾ 외로움과 질병을 홀로 겪다가 목숨을 스스로 끊는 노인들에¹²⁾ 이르기까지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 또

-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3.6%(1998년)에서 20.3%(2012년)로 감소했다.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9.19.)
- 4) 자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1997년)에서 46.3%(2012년)으로 감소했으며,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26.0%(1997년)에서 53.5%(2012년)으로 증가했다.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2014.9.19.)
- 5) 2000~2010년 사이의 우리나라의 1000명당 평균 이혼 건수는 2.72로 1951~1959년(0.20)보다 13.6배가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일본의 이혼율을 앞질러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에 달했다. 「한국, '이혼율' 아시아 최고 수준...13.6배↑」 (이데일리, 2014.3.6.)
- 6)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9%(1998년)에서 33.2%(2012년)로 줄어든데 반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응답은 8.1%(1998년)에서 13.9%(2012년)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0%(1998년)에서 52.9%(2012년)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 7) 2014년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즉 '고독사'가 1008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3년보다 15% 가량 증가한 숫자이다. 한편 2013년 전국의 독거노인은 138만 명으로, 2000년의 54만 명보다 2.5배가량 많아졌다. 「'고독사' 50대서 급증, 노인엔 국한된 문제 아니다」, (헤럴드 경제, 2015.3.24.)
-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무려 14,4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 29.1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 자살률 12.1명의 배가 넘는 수준이다. 「위기의 아버지들..남성 자살률 나이 들수록 증가」, (연합뉴스, 2015.5.7.)
- 9)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10~19세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01년 3.19명에서 2011년 5.58명으로 57.2% 증가했다. 이는 OECD국가 중에서 칠레의 5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청소년 자살률 10년 새 57%↑..증가율 OECD 2위」, (한국일보, 2013.9.11.)
- 10) 「또 동반 자살..경주서 남녀 4명 동반 자살」, (중앙일보, 2015.4.5.), 「부산 모델서 남녀 대학생 동반 자살...군입대, 취업문제 고민」, (조선일보, 2013.5.21.), 「중병 든 사회 '동반자살' 쇼크」, (주간동아, 2012.12.24.)
- 11) 「송파 세 모녀 이어 부친 세 자매 생활고 비관 자살」(뉴스에듀, 2015.5.25.)
- 12) 남성 노인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살률을 보여주었다. 80세 이상 남성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168.9명에 달했다. 여성보다는 남성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60세 이상이 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탓으로 분석된다. 「위기의 아버지들..남성 자살률 나이 들수록 증가」, (연합뉴스, 2015.5.7.)



공동체의 미래를 의미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토로하고 있는 낮은 행복 지수¹³⁾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 이런 상황에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와 우리 삶의 본질적인 의미, 그리고 바람직한 공동체 구성과 운영의 근본 원리를 자문하는 인문학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며, 긴요한 일이 되고 있다.
- 인문학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모습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 인문학계의 현실

- 앞서 언급한 인문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인문학을 수요하도록 만들고 있다. 교육 수준의 상향평준화, 노령 인구의 급증, 세대 차이/계층 차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 등의 여러 요인들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개인적인 삶의 의미를 인문학을 통해 발견하려는 각계각층의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대학 신입생 수 급감, 지식 생산의 주체의 변화, 급격한 사회 변화 등은 역설적으로 전통적인 대학 인문학의 역할과 위상을 급속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 인문학의 위기와 대중 인문학의 활성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그러므로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특히 전통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지식과 정보의 집결지로 기능했던 도서관은 인문학의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문학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을 드높이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입

13) 「행복의 조건, 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 '깜짝」, (조선비즈, 2014.6.1.)



장에서 ‘길 위의 인문학’을 포함한 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과 중요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

○ 도서관과 인문학

- 전통적인 의미에서 도서관은 인류가 축적한 지식 정보를 인쇄된 출판물의 형태로 보존하고, 이를 수요자가 열람하는 공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 정보의 축적 및 보존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으나,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를 반영해 도서관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 특히 “디지털화”로 요약되는 정보 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출판물 형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동시에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구성원의 문자 해독률이 높아진 현대에 이르러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그 자체와 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부응해 도서관이 전통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인문학 강연 등 여러 가지 인문학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 특히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그간 강연 등 산발적이며, 일회성 행사로 추진되던 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본격화한 최초의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개요

기간	사업 내용	참여 내용	사업 예산 (백만원)
2010~2012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국립중앙도서관/조선일보/교보문고 등과 공동 주최	100
2013	동 사업의 확대 실시 (인문정신문화진흥 정책의 일환)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2013년 7월에 선정)	- 공공도서관 121개관 (15개 시·도, 서울 지역 제외) 1개관 당 4회 이상 (총 594회, 강연 305회, 탐방 289회) - 참가인원 21,977명	1,934
2014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 공공도서관 180개관 (16개 시·도) 1개관 당 6회 이상(총 1,080회 이상) 1개관 당 1회 이상의 후속모임을 통한 프로그램 지속성과 연속성 증대 - 참가 인원 총48,193명	3,620
2015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 공공도서관 280개관 (17개 시·도) 1개관 당 6회 이상 (총 1,680회 이상) 1개관 당 1회 이상의 후속모임을 통한 프로그램 지속성과 연속성 증대 - 참가예상 인원 58,800명	4,902

○ 사업 운영 방식

-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매해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되며, 사업 신청, 심사 및 선정, 사업 시행, 현장심사 및 평가, 사업 담당자 워크숍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길 위의 인문학’ 주요 컨셉

유형	기획 내용
기 본	강연과 탐방(체험)을 각각 1회씩 조합하여 1차로 하며, 총3차를 진행하고 후속모임 1회를 포함해 총7회를 진행하는 것을 기본
연 계	각 부처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예: 교육부와 협업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문화가 있는 날’ 연계, 관광축제, 작은영화관, 문화생태탐방로 등)
대상 특화	인문학적 혜택이 부족한 문화 소외 지역/계층 또는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대표적인 사업¹⁴⁾

- 송파글마루도서관(서울) : 「길 위에서 만나는 딸과 엄마의 인생 기행」
- 수영구도서관(부산) :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
- 보성공공도서관(전남) : 「보성의 역사를 찾아 미술 기행을 떠나다」
- 화도진도서관(인천) : 「인천모던 & 포스트인천」
- 동해시립북삼도서관(강원) : 「영동지역 문학의 전통을 찾아, 동해안 어촌의 전설을 찾아서」

○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대한 평가¹⁵⁾

- 언론에서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듯이, 동 사업은 인문학과 탐방 프로그램을 결합했다는 컨셉의 독특성으로 짧은 기간 안에 매우 큰 성과를 거두면서,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문학의 사회 확산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14)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2014년 사업 중에서,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가 지역별로 우수 사례로 선정한 5개 도서관의 사업 내용임.

15) 동 사업의 자세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5년)을 참조하라. 동 보고서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공공도서관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기간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탐방을 결합한 특성과 도서관의 장점’을 연결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시에 개선 방향으로 사업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포함해 동 사업을 보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 참여 대상 및 주제를 다양화할 것, 참여자의 프로그램 기획 참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동 보고서 207-208쪽.



- 변화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 대중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다양한 인문학적 지식과 지혜를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인문학을 구현하고 있다.
- 지역 공공 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지역 고유의 인물을 포함해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Ⅲ. ‘인문 복지’ 관점에서 바라본 도서관과 인문학

○ 인문 복지(人文 福祉)

-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인문학 강좌인 얼 쇼리스(Earl Shorris, 1936-2012)의 클레멘트 코스(Clemente Course)와 성공회대가 운영하고 있는 ‘성프란시스 대학’ 등은 인문학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더불어 공동체의 이웃과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혜가 필수적이다.
- 인문학은 적은 비용으로 삶의 의미 발견을 포함해 우리의 상상력을 신장할 뿐더러,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모색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인문학은 개인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의미와 발전 방향

-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의 생산자 및 향유자가 되는 시대이며, 디지털화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유례없는 방식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도서관은 정보 축적 및 보존, 그리고 확산의 중심지로서 디지털 시대에 지식 정보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마땅히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도서관은 21세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상상하고 사유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 도서관과 인문학의 적극적인 만남

- 도서관은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고, 구현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드웨어이자 통로이다.
-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은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확산하는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행복 지수는 물론이거니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IV. 맺는 말

- 인문 지식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 발굴 등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¹⁶⁾
- 도서관과 인문학의 만남은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를 통한 복지 증진이라는 「인문 복지」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6) 특히 향후 사업 기획과정에서는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늘어난 노년층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을 포함해 청소년과 아동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고려될 필요가 크다. 아울러 현재의 사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대한 인력 충원 및 전문 컨설팅 등 사업의 효과를 장기화하는 다양한 지원 방식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 사례를 통해 본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¹⁾

정광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외국에서 인문학은 서구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 중의 하나인 인본주의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현대에도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 창의성과 융복합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우리 시대 IT 분야에서 최고의 스타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의 발언은 이러한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스티브 잡스가 2010년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애플이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항상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빌 게이츠가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하고, TED 등을 비롯한 공적인 강연·연설에서 인문학과 독서를 강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우리가 인문대학이라고 부르는 Liberal Arts College는 문학, 언어, 철학, 역사 등 전통적인 인문학 이외에 수학, 과학 등을 포괄하여 시민으로서의 이성적 사고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통적인 인문 교육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은 학문적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지

1) 이 글은 정광렬(2015),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임.



않고, 작문, 토론, 논리, 커뮤니케이션 포괄적인 이해와 소통, 문제해결 능력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외의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소개된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추진방식이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1998년 시애틀에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One Book, One City)”운동은 미국의 지역사회에서(때로는 도시 단위에서) 일년에 한 책(계층별 등을 이유로 복수의 책을 선정하기도 함)을 선정하고, 이를 읽고 토론하고 각종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업은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NEA)에서 2005년부터 “The Big Read”라는 프로젝트로 이러한 운동을 하는 지역사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확산되었다. 참고로 2013/14년도에 프로젝트에 지원된 금액은 1백만달러이며, 77개 단체가 단체별로 3천달러에서 17,300달러 범위에서 지원받았으며, 이중 24개 단체는 최초로 지원금을 받았다.²⁾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순수한 인문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주로 지식의 전달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서구의 인문학은 자유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회적인 방식 보다는 지속적인 방식, 실생활과 접목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고하고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외의 인문학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 위의 인문학」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해외사례의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체계와 방식,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NEA의 지원방식은 비영리단체가 해당 사업비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NEA의 지원을 매개(보충)으로 지역사회와 재단, 지방정부의 후원금이 매칭이 되어 프로젝트 예산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실제 NEA의 보조금이 차지하는 프로젝트 예산비중은 평균적으로 10% 이하로 추정되고 있다.



II. 해외의 인문학 프로그램 사례³⁾

1. 디지털 인문학 육성 사업

1) 프로그램 개요

국립인문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 NEH)은 미국 인문학 정책의 실행을 하는 연방기관으로(예술 분야의 NEA와 연계되어 있으며, 동일한 법률에 의하여 NEA와 함께 설립) 지속적으로 인문학 연구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미국 인문학 발전의 핵심으로 디지털 인문학을 육성하고 있다.

전통적 인문학에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의 융합을 장려하여, 보존 및 접근, 연구, 교육, 공공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인문, 사회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집중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를들어 빅데이터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연구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중점을 두어, 인문·사회과학분야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대한 자료(디지털화된 교재, 신문·음악 등 웹검색, 보마일 데이터 등)를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지원한다.

또한 인문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프로젝트 개발을 촉진하고자 기획 단계에 소규모 지원금과 혁신적 프로젝트의 조성 단계를 이미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교육 등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NEH의 디지털 인문학 육성사업은 인문학 연구단체에 디지털인문학 정보지원센터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2) 프로그램 시사점

NEH의 디지털 인문학 지원사업은 기존의 인문학 연구에서 지원되는 항목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디지털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여 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전통적인 인문학에서 다루어 오던 연구 주제를 디지털

3) 해외사례 내용은 정광렬(2015),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털 시대에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성과 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의 전 과정을 인문학 연구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운용 또한 인문학자들 스스로 담당하려는 의식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인문학의 대응과 가치를 제고하며,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복용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은 국가 주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일회성 사업이나 행사 위주 보다는 기반 조성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2. The Public Humanist(공공 인문학자)

1) 프로그램 개요

1974년 미국 NEH 산하에 있는 기구로 출발, 현재는 개인 기부, NEH 및 매사추세츠 문화위원회(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나 논쟁에 있어서 인터넷의 ‘집단 블로그’로서 인문학적 시각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40명에 이르는 뛰어난 작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및 인문학 교사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여 주간신문에도 게재되며, 독자들로 하여금 논평을 하도록 권장하여,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 프로그램 시사점

유명인사와 교수들이 사회문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며 글쓰기를 통해 상호 소통하여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토론, 세미나, 강의, 공연 등 수많은 인문교양교육 활동을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민자, 흑백차별, 빈부격차 문제, 테러와 평화, 인권 등 미국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고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서구와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가 지역사회와 미국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집단사고의 위험에 빠져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되기 쉬운 현대 정보사회와 한국사회의 시사점을 준다. 또한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문제가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대두되는 환경 자체가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과 소통은 지식을 뽐내는 전문가 그룹이나 한정된 정보와 사고편향을 가질 수 있는 소수 그룹들 내부의 토론이 아닌 열린 마당에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3.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s)

1) 프로그램 개요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양교육에 고전읽기 프로그램이 자리매김하려는 운동이 전개되자 1930년 허친스(R.M. Hutchins)와 아德勒(M.J. Adler)가 대학생과 일반인의 교양교육을 위해 추진하였다. 1952년 다른 학자들과 협력하여 “서양의 위대한 저서(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라는 54권으로 된 전집을 출판하였는데, 이중 4권부터 54권까지 51권이 위대한 저서로 지정된 것이다. 그동안 지난 3천년동안 서양에서 활동한 작가 74명의 작품 443편을 이해하고 해석하였다. 위대한 저서에는 인문학 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고전 전체를 인문고전이다.

국내에는 1991년 신득렬 교수가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대구의 아카데미아는 2층의 북카페를 개설하여 1층은 일반카페로 2층을 북카페와 회원들의 모임장소로 활용된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위대한 저서의 운영방식을 잘 알 수 있다. “위대한 저서”를 회원들이 1년에 성인 5~7권, 청소년은 3~4권을 통독한다. 모두 12년간의 커리큘럼을 갖추고 순차적으로 저서를 읽고 각 연차에 맞는 토론 모임도 함께 가진다. 이 모임은 허친스와 아德勒가 만든 특별한 토론 규칙을 따른다. 신 원장은 “한권의 책을 읽을 때 다른 책은 끌어들이지 못하게 한다. 텍스트 그 자체를 놓고 집중 감상하며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고 취지를 밝힌다. 성인 및 청소년 회원들이 10명씩 그룹을 구성하여 매주 50쪽 분량을 읽고 1시간30분가량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 프로그램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의 프로그램은 성인들은 위한 인문고전교육 프로그램이다. 인류의 위대한 고전을 체계적·심층적으로 독서하고 토론하고 사고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비판적 독서와 진지한 청취, 정확한 발언, 반성적 사고와 같은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대 변화에 따라 오늘날 미국대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문고전강좌 프로그램이 단기간 또는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많은 것과 달리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프로그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고전의 이해와 읽기 교육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4. Improving Literacy Through School Library

(학교도서관을 통한 역량향상)

1) 프로그램 개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민자들의 교육과 역량향상은 중요한 사회와 교육문제이다. 영어에 미숙한 이민자들과 기존 학생들의 읽고 쓰기 능력의 저하로 낙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자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미국 교육부가 기획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질의 학교도서관 프로그램과 전문화된 사서교사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최신의 교육자료, 교사들의 지원과 협력, 부모들과 봉사자의 노력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미국 교육부에서 매년 2억 5천만불을 지원하여 최신자료와 유자격 전문가를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읽고 쓰는 학습능력을 학교 내에서의 교육방식이 아닌 학교도서관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정보 활용능력과 독해력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2) 프로그램 시사점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교육부의 저소득층의 읽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 공교육개혁법의 중점적인 정책으로 시행되었다. 학습능력의 향상을 책과 도서관과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사들만이 아닌 사서교사와 부모 등 자원봉사자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학습능력 향상이 주로 폐쇄적인 교사와 정규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도서관의 활용수업도 보조적인 측면에 국한되고 있는 것과 달리, 도서관과 책 활용이 중심이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활용수업이 주로 관심과 역량이 많은 학생이 많이 참여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미국의 프로그램은 읽기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흥미와 지속성, 자기주도적인 방식을 가지도록 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5. EDSTIEment

1) 프로그램 개요

국립인문기금(NEH)의 지원으로 인문학 관련 특정 주제별로 그 분야의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자료와 정보 공유를 통해 교사들과 학생들이 인문학 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NEH가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중고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사이트를 통해 레슨플랜부터 수업활동 자료, 평가샘플까지 모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인문학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자료와 방식, 기획프로그램의 DB 구축,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반조성 사업이다.

2) 프로그램 의의

현장에서 만든 실질적인 자료와 무상제공을 통해 손쉽게 교사들이 인문학 수업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관련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접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문학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과 주제의 개발, 관련 자료의 DB화, 기획자 들 간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직접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의 확산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6. 희망의 인문학

1) 프로그램 개요

1995년 미국에서 얼 쇼리스가 뉴욕 로베르트 클레멘트 가족보호 센터 회의실에서 시작된 클레멘트 과정에서, 노숙인, 빈민, 죄수 등 31명을 대상으로 정규 대학 수준의 인문학을 가르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문학과 예술 등 인문학 강좌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아 존중감을 회복시키고자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철학, 문학, 소자본 창업, 재테크 등을 중심으로 저명인사의 특강과 문화 공연 관람 및 현장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좌 일정은 크게 참여자 모집 및 반 편성, 입학식 및 강좌 운영, 강좌 종강 및 졸업식으로 이루어진다.

2) 프로그램 시사점

빈민계층, 죄수 등 특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간을 중심하는 인문학 고유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인문학의 정신과 가치가 학생이나 일반 성인 등을 위해서만이 아닌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자립 이외에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의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교도소 수감자, 장애인 등 특수 소외계층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7. UTLS-L'Univeristé de tous les savoirs(모든 지식의 대학)

1) 프로그램 개요

최첨단의 학술적 성과를 가장 많은 대중에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가 기획한 시민 교양강좌였으며, 우리나라에는 이 강연 내용을 「네오아카데미아 총서」로 발간하였다.

사노비-생트라보라는 제약회사의 단독 후원으로 진행되며, 기업체의 홍보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체의 후원은 받지 않고 있다.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개의 주제에 대해 365명의 석학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1시간 반 동안 강의와 토론을 하는 시민교양강좌이다.

1년에 개설되는 주제 가운데, 900개는 과학과 기술, 500개는 인문사회과학, 300개는 경제와 경영 관련 주제로 분류되며, 1시간 반 정도 강의에서 절반은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질문과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영국, 스위스, 벨기에, 일본 대학들의 교수까지 참여하며, 국·사립 연구소 연구원들과 기자, 기업체 간부,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 주제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빠르게 변하는 관련분야의 흐름을 잘 강의할 수 있는 인물들도 포함된다.

2) 프로그램 시사점

텔레비전과 인터넷, 일간 신문을 통해 중계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수준 높은 교양과 지식의 총합이라는 품평을 받았다.

성공의 원인은 저명한 강사의 참여와 강좌의 내용이 일상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것들을 강연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주로 학생, 지역사회, 소외계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성인을 위한 대중 인문학 프로그램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8. kidsREAD⁴⁾

1) 프로그램 개요

싱가포르 정부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독서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건전한 독서습관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 5명에 봉사자 1명이 담당하여 독서를 도와주는 형태로, 1주일에 1시간씩 1년 주기로 추진하는 장기프로그램이다. 봉사자들은 교육 받은 15세 이상의 학생, 학부모들이 주축을 이루며 읽기 촉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프로그램 시사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독서습관을 형성하게 하여 지식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이지만,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

Ⅲ.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시사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대학 등 다양한 주관기관을 통해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문학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인문도서 읽기, 강의 등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 세대격차, 정치, 자기이해 등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청년 인문캠프와 자유인문캠프 등과 같이 캠프 형태가 아닌 프로그램들은 강연자가 전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능동적으로 인문학적인 사고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책읽기나 강연 형식이 아닌 공연 관람의 경우에도 능동적인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수동적 관람 형식 혹은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제고가 궁극적 목적이므로, 현재의 일회적이고 강연중심의 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4) <http://www.nlb.gov.sg/kidsread/>



또한 인문정신진흥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부는 기존의 독서 프로그램이나 명사 강연 등과의 차별성이 미흡한 사례도 있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경우 다년도 사업으로 지속성이 있다는 것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대상자 특색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주제 및 시간선정 등)이 강화된다면 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전달형 강의 보다는 실생활에 유용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전달방식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해외 인문학 프로그램들은 실제 국민이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노력에서 발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 해외 사례인 학교도서관을 통한 역량향상(Improving Literacy Through School Library)은 이민자의 읽고 쓰는 능력 배양을 위해 시작되었고, 현재는 매년 자료의 업데이트와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 소양을 키우는 중점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책을 읽고 빌리는 기능의 도서관에서 벗어나 미국 교육부의 프로그램 전문화·업데이트와 전문가 배치를 통해 학교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고 지속하고 있다는 데서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기획 및 전문사서 도입 등의 대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NEH의 디지털 인문학 육성 사업은 디지털화 방식을 이용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방법론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시민과 인문학 연구의 거리감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등 단순히 강연만이 아닌 추진방식과 기반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정부의 UTLIS의 경우 1년 365일 다른 주제로 교양강좌를 인터넷과 신문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들으러 가야 하는 불편함을 축소하였고, 일상적인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길 위의 인문학」이 2014년 80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KBS와 함께 다큐멘터리 방영을 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 시도로서 향후 질 좋은 기획 프로그램을 대



중에게 많이 선보일 수 있게 발전해야 할 영역이다.

국내 인문학 프로그램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여지역이나 대상자가 제한적인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이라는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통하여 추진되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으로 의의가 있다. 정부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전달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타당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문학의 가치 확산에 부응하여 1회성 행사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이 많으며, 수요는 있지만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응한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외국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1회성 프로그램 보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멘토의 역할 등이 강조되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효과 달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도 1회성 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일부 심화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즉, 참여자의 주체적인 기획과 확산을 위한 방식, 대학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의 강화, 1회성 방식 위주에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램 기획 등 인문학 진흥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बैं크와 교육방식의 개발과 공유 등의 프로그램도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주제 구성에 있어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라는 목적에 충실하여 인문정신문화의 본질적·핵심적 가치의 확산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프로그램 बैं크, 교육방식과 교재의 개발과 공유, 수요자의 참여 확대, 지속성을 위한 커뮤니티 등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시장에 맡겨져 있다. 이것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의 인문학 교육의 유래와 지향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 문화정



책은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 등을 다루는 정책은 정책의 가치지향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정부 주도 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공공도서관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기간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유사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지만,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탐방을 결합한 특성과 도서관의 장점을 결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한 다양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의 역량과 성과,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역할 탐색 등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1회성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이를 지속하고 공공도서관의 영역을 넘어 다른 사회문화 분야로 확산하고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사 및 문학 등에 치우친 주제를 다양화하여 다양한 사회의 이슈와 주제들을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접근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문학의 가치인 융복합의 트렌드와도 부합하고 도서관의 위상과 가치를 제고하며, 문화융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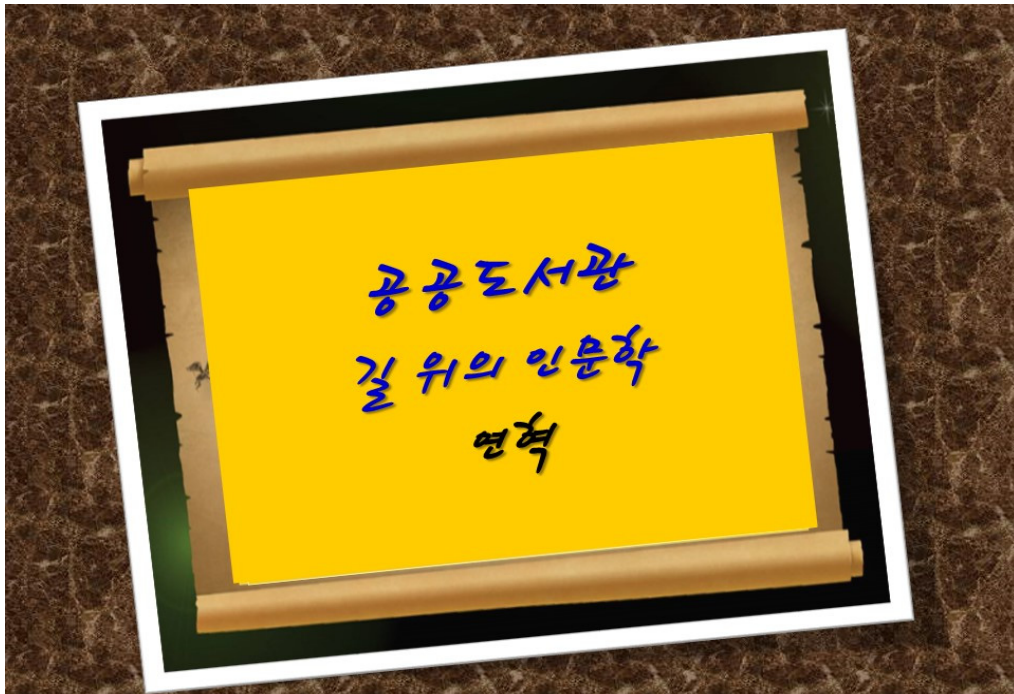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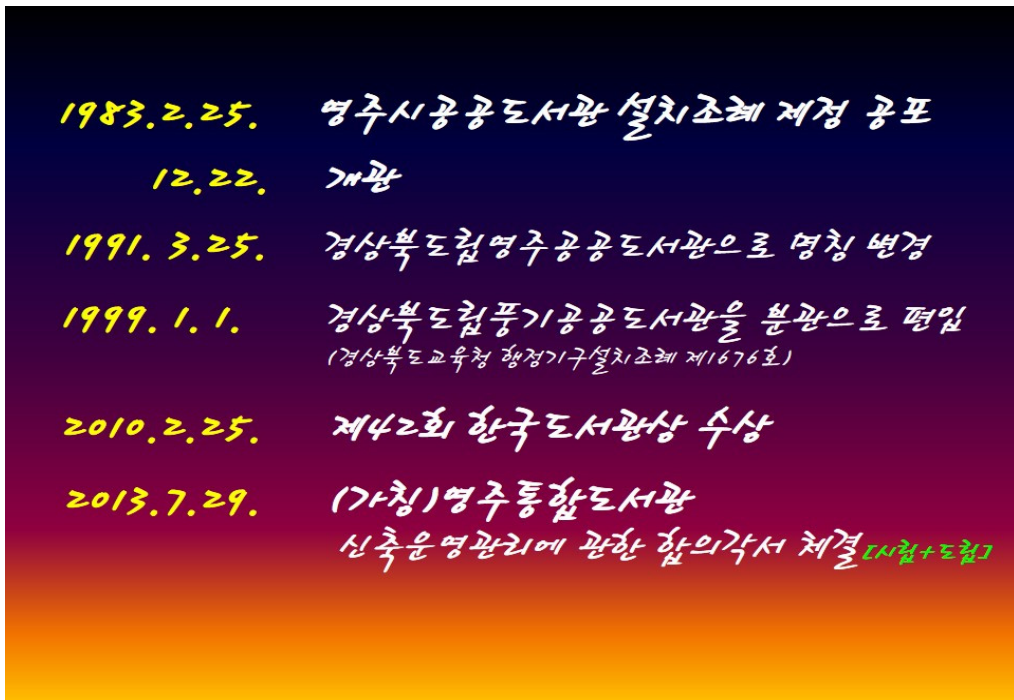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1」

- 역사에 길을 묻는 영주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장사년 | 경상북도립영주공공도서관 관장

역사에 길을 묻는
영주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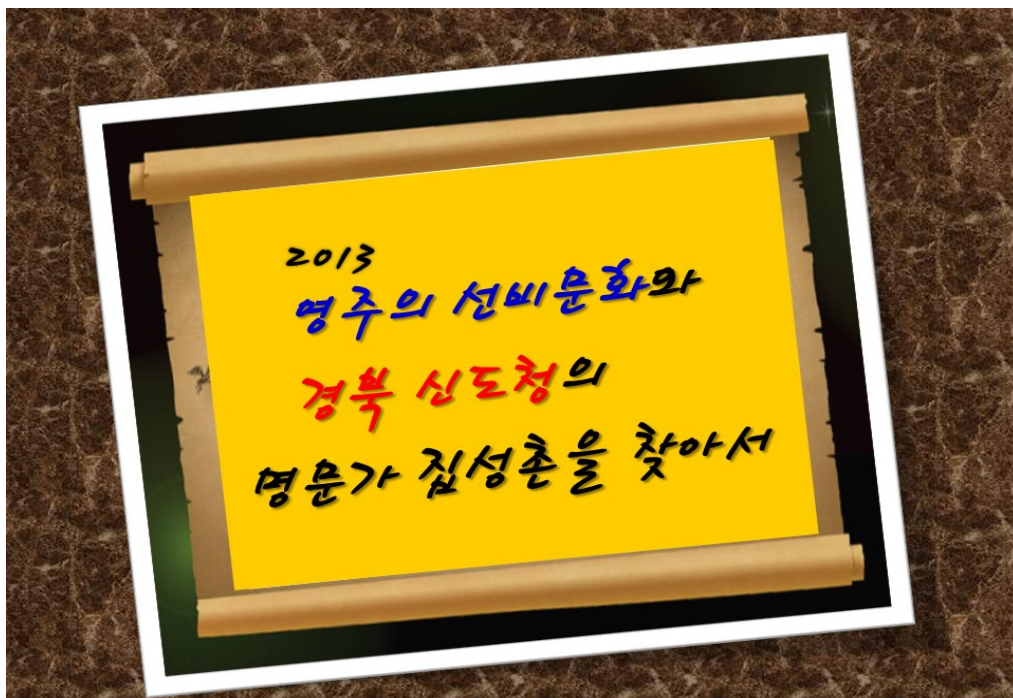
2013년 121개관
2014년 180개관
2015년 280개관

우리중대도서관에서 인문학강연 및 탐방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공모사업

길 위의 인문학

공공도서관 **책 들 관**

문화체육관광부



2013
영주의 선비문화와
경북 심도청의
명문가 집성촌을 찾아서



1차 영주의 선비문화를 찾아서

소수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신청

유교(성리학)와 관련된 전통문화유산을 체계화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유교이상을 간직한 소수서원을 통해 영주의 선비문화찾기

1차 영주의 선비문화를 찾아서



무심마을



2차 경북 신도청의 풍수와 명승가 집성촌을 찾아서

경북 신도청의 풍수



백두대간을 척추로 하여 북쪽과 서쪽으로는 **운수지역**,
남쪽으로는 **보현지역**이 자리하고 있고, 태백산 부근에서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으로 갈라졌던 산의 지세가
경북지역을 돌아서 다시 합쳐지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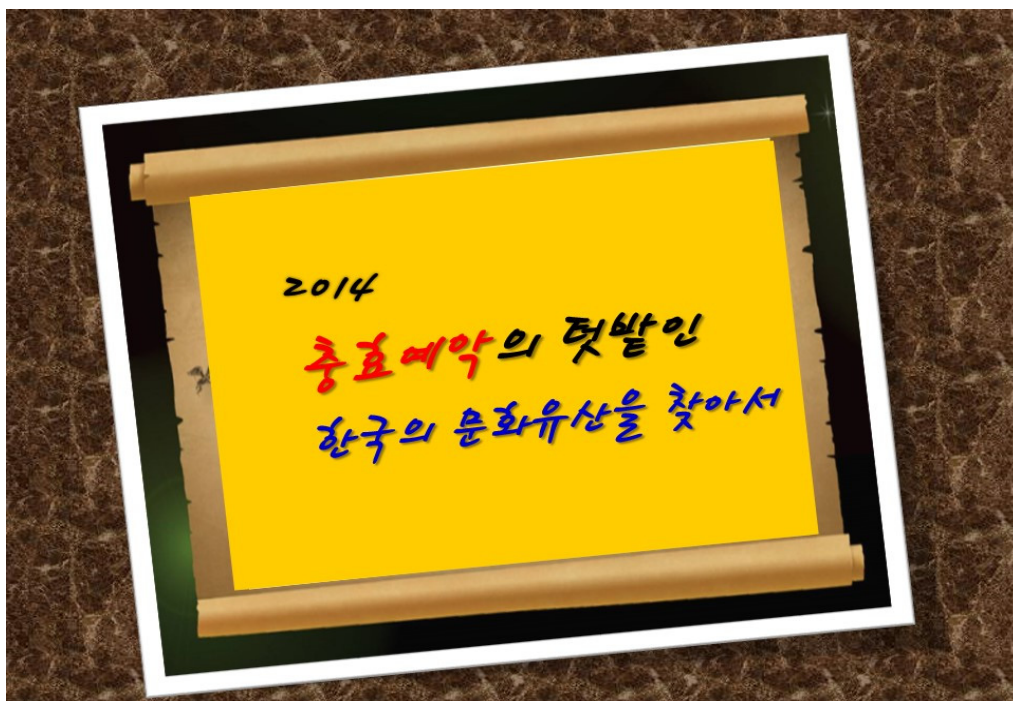
2차 경북 신도청의 풍수와 명승가 집성촌을 찾아서



풍산류씨 집성촌
하회마을

안동김씨 집성촌 소산마을

풍산김씨 집성촌 오미마을



忠-포국사찰 부석사의 직선의 역사와 곡선의 미학





禮-예와 예치 그리고 사랑이 깃든 이몽룡(성이성)의 생가



2014년

孝-정조대왕의 효가 묻어나는 수원화성



2014년



樂-음악과 퇴계문화의 만남



2014년

음악 마음을 다스리다



2014년





인문학 탐방지 결정

2013, 2014 우리지역 **영주**

소수서원, 부석사

2015 수원화성, 청주, 서울

다른지역을 탐방하고 싶어하는 **이용자요구 반영**



대상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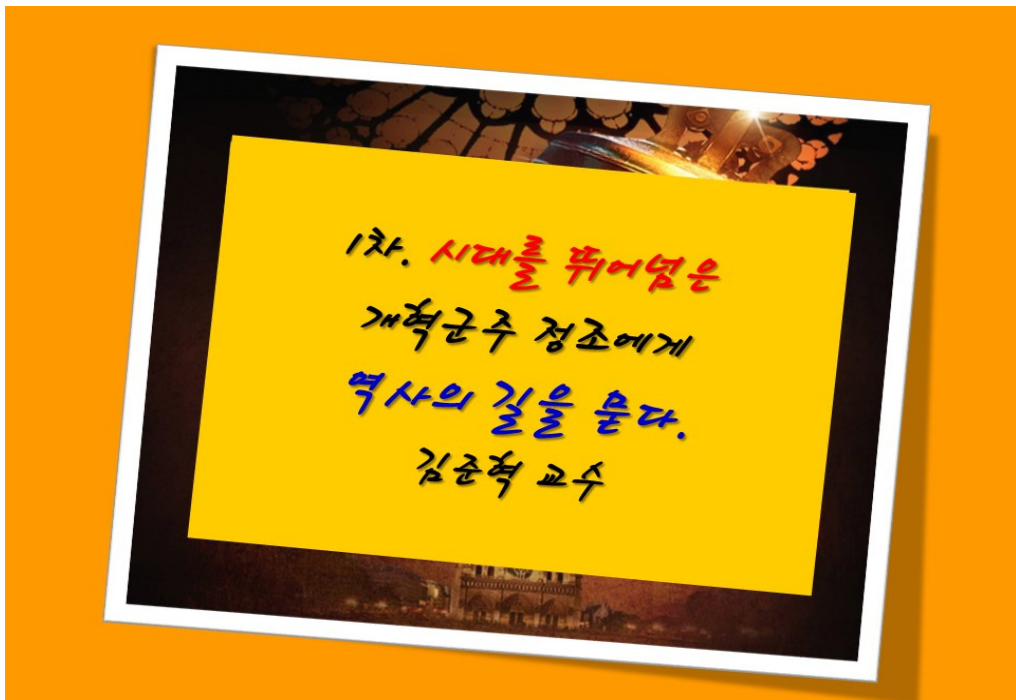
각 차수별 대상을 다르게 선정

1차. 인문학에 가장 관심 많은 성인

2차.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인문학 중학생

3차. 자녀와 함께하는 인문학 가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융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역사에게 길을 묻다
'인물과 유산을 중심으로'

● 접수일시 : 2015.5.20.(수) 10:00~모집완료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 : 성인
 · 강연+탐방: 30명 (탐방을 신청하신 분은 강연 필수)
 · 강연만: 50명
 ● 비용 : 무료(단, 음식비 1만원 개인부담)
 ● 문의 : ☎ 631-8139, 8140

시대를 뛰어넘은 개혁군주, 정조에게 '역사의 길'을 묻다.

김준혁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강연

**이산
정조**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일시: 2015.5.29.(금) 19:00~21:00
장소: 영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주최/도서: 이산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김준혁/여유당/2008
 ※ 강연 후 저자한일 사인회가 있으며 책을 미리 읽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미지출처: YE524

탐방

봉화수령정 수원화성 화동문

일시: 2015.5.30.(토) 07:00~19:00
장소: 수원화성
 팔달문, 동북공심돈, 병화수류정,
 화동문, 화성행궁, 장안문, 서양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재단

시행 한국문화재단



시대를 뛰어넘은 개혁군주 정조에게 역사의 길을 묻다



김준혁교수 인문학강연 85명 참여

수원화성 인문학 탐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축조한 성



수원화성 인문학 탐방



국왕 정조의 효심과 오늘날 꼭 필요한 국가전체를 살리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개혁군주 정조의 위민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2차. 직지, 국격(國格)을 높인
세계유산에서
역사의 길을 묻다.
박석종 교수



문화융성 인문학 기원

2차 공공도서관 걸 위의 인문학 운영
역사에 **길**을 묻다
'인물과 유산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영광중학교 선정

적지, 국격(國格)을 높인
「세계유산」에서 「역사의길」을 묻다.
박석홍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학 교수

강연
일시: 2015.9.22.(화) 10:00~12:00
장소: 영광중학교 강당
주최: 도서: 적지, 태학사 발행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라임 발행
이미지출처: YES24

탐방
일시: 2015.9.24.(목) 07:30~18:30
장소: 청주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상당산성
상당산성, 청주고인쇄박물관, 공군사관학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시행** 인문학기원 영주광역시

인
문
학
강
연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우는 프로그램, 영광중 125명



공군사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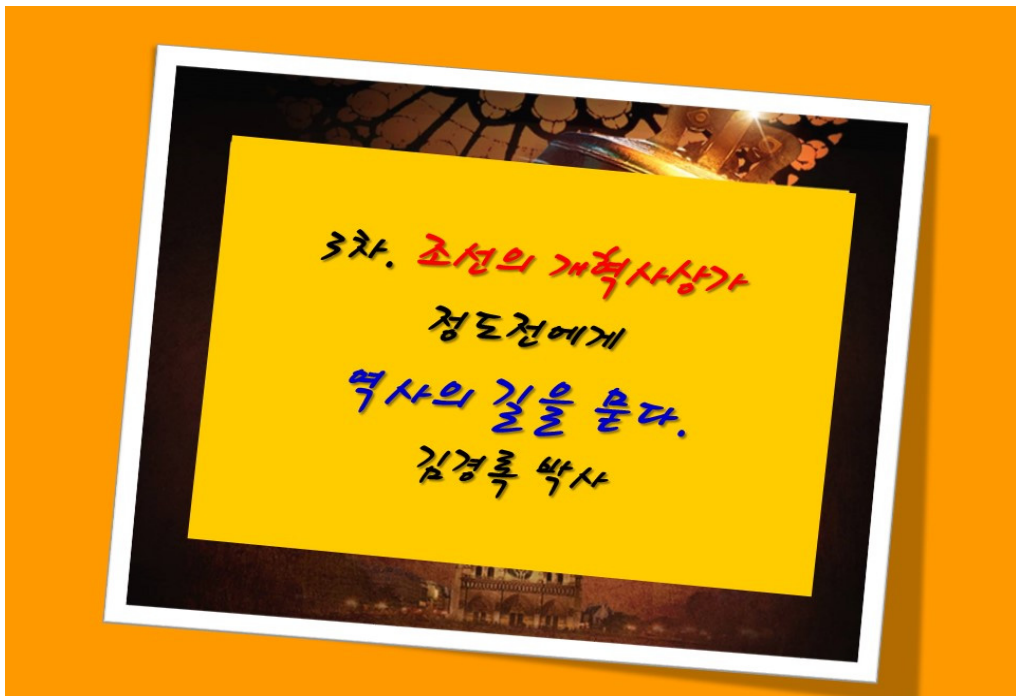


군인 및 공군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 마련

청주고인쇄박물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지정,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 **적지**





문화융성 공공도서관

3차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역사에게 질문을 하고
'인물과 유산'을 중심으로*

● 접수일시 : 2015.10.5.(월) 10:00~모집완료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선착순 모집
 ● 모집인원 : 가족 (부모1인, 자녀1인~초등4학년~중학교 3학년까지)
 - 강연+탐방 : 40명 (20가족, 탐방 참가자는 강연 반드시 참여)
 - 강연만 : 40명 (누구나)
 ● 비용 : 무료 (단, 음식비 3만원 개인부담)
 ● 문의 : ☎ 633-8139, 8140

**조선의 개혁사상가 정도전에게
'역사의 길'을 묻다.**

김경록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강연

지도자 자격

일시: 2015.10.16.(금) 19:00~21:00
 장소: 영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주제도서: 역사에서 찾은 지도자의 자격, 공결 발행

이미지출처: YES24

탐방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 경복궁

일시: 2015.10.17.(토) 07:30~19:30
 장소: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
 천년비각, 경복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도서관협회

시행 서울특별시립중앙도서관

역사 속의 위대한 지도자 **삼봉** 정도전

강연

지도자 자격

일시: 2015.10.16.(금) 19:00~21:00
 장소: 영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주제도서: 역사에서 찾은 지도자의 자격, 공결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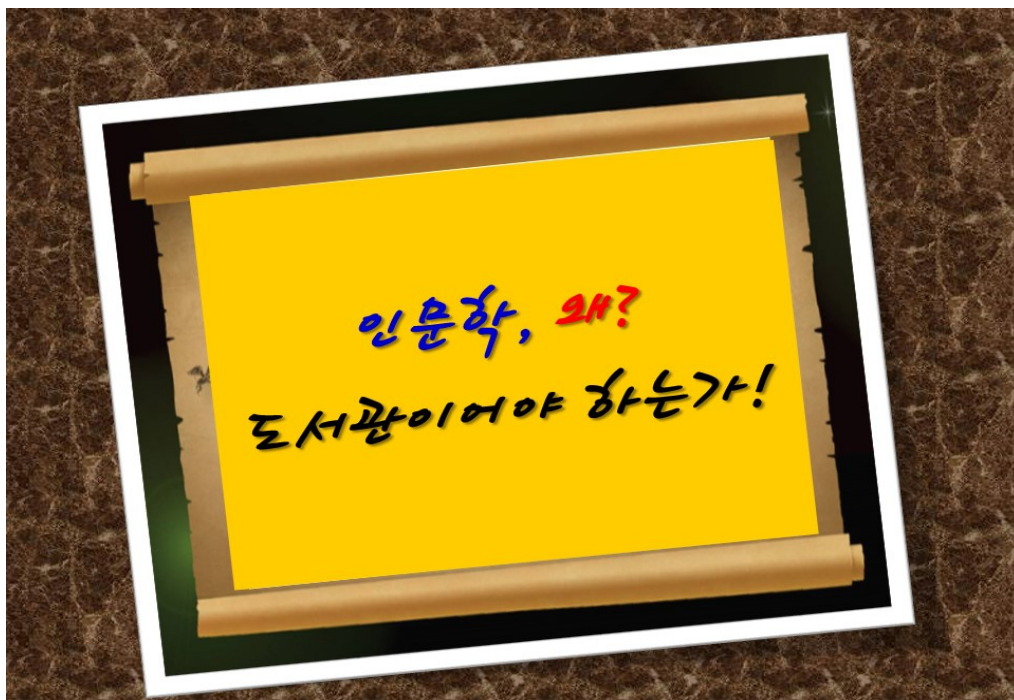
이미지출처: YES24

탐방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 경복궁

일시: 2015.10.17.(토) 07:30~19:30
 장소: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광화문,
 천년비각, 경복궁

그의 사상과 활동을 지켜보면서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역사의 교훈





인문학, 왜?

도서관이어야 하는가!

1. 인문학의 기본 책 책을 접하기 쉬운 곳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선호도

역사(45.7%), 문학(35.6%), 철학(12.8%)

건축(10.6%), 음악(1.4%), 미술(1.4%)

- 2014 설문조사 결과 -

인문학, 왜?

도서관이어야 하는가!

2. 공공도서관은 마을마다 있다

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에서
저명한 강사의 인문학 강연 및 토크를 직접 경험

나. 도서관이 동네, 참여자들과 소통하기에도 좋고
인문학의 근원 책 바로 옆에 접할 수 있어 좋다.



인문학, 왜?
도서관이어야 하는가!

3. 박물관의 인문학 운영 한계

- 가. 박물관 수의 절대부족
- 나. 접근성 문제
- 다. 자료의 한계

왜? 사람들이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에 열광하는가?

저명한 강사의 강연을 통해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내재된 이야기들을
귀와 눈과 가슴으로 듣고 읽고 잡아내고,

현장체험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인문학 경험

가족과 함께 어딘가를 여행 - 누구든 할 수 있다



책, 현장, 사람이 만나
독서문화의 장을 열다

나아가야 할 길

재미있는 인문학

+ 깊이있는 인문학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인문학의 놀이터

계속적 지원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 2」

— 인천광역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소속 도서관을 중심으로 —

송영숙 |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관장

I. 인문학에 대한 정의¹⁾

인문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영역이다.

자연을 다루는 자연과학과 대립되는 영역으로 자연과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현상을 다루는데 반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대상, 광범위한 학문영역이 인문학에 포함된다.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이론과 실천, 인간을 이론으로 하는 학문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준설정이 어렵고, 이에 대한 의견일치의 어려움이 있다.(예: 역사와 예술이 인문학에 포함 또는 불포함)

—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65

인문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이다.

정치 경제 역사 학예 등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정신과학을 통틀어 하는 말로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인간의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 능력을 바르게 하기 위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이다. 라틴어의 Humanitas(후마니타스)에서 인문과학이란 개념이 유래되었고, 인문학의 영역이 시대에 따라 변천해 오긴 했으나 인문과학이 널리 인간 및 인

1) 네이버 사이트, 지식백과 인용



간접 사상 일반에 관한 과학적 연구라는 의미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두산백과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한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인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인데 반해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연구의 영역으로 삼는다.

-학문명백과

인문학은 근대과학에 대해 그 목적과 가치를 인간적 입장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인류문화에 관한 모든 정신과학을 통칭하여 일컫는다. 그리스·로마시대에는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교육이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중세의 신 중심의 부정적인 인간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대의 인간관을 다시 계승한, 교양을 위한 학문이며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고 완전하게 하는 학문이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의 전통은 훈민정음의 창제, 조선조의 성리학의 도덕론, 실학의 올바른 학문정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네이버 사이트



Ⅱ. 인천시 도서관발전진흥원 소속 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

1. 길 위의 인문학

1) 수봉도서관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명 :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개별주제 : [대표특강]: 왜 인문학인가? 인문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1. 인문학: 나를 성찰하는 예술, 내가 만들어 가는 나의 삶
2. 文學山? 文鶴山?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인천! 찬란했던 이름 미추홀!
어떤 역사와 문학이 잠들어 있을까?
3. 강사: 김병완, 김종현, 함영연, 김윤식, 임학성, 박윤희, 김정모

① 프로그램 취지

- 사회적인 인문학 열풍 속에서 인문학이 부각되고 있으나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인문학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인문학 강연, 탐방 등을 통해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천 남구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문학, 예술, 역사가 잠들어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높은 빌딩들에 가려졌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의 단편인 문학산, 관교동, 문학산성, 학산서원지를 탐방, 관련된 인천의 옛 역사에 대한 시와 소설과 함께 걷는다.
- 1970·80년대 생활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영화, 연극, 미술 등의 지역예술가들이 마을의 모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가는 남구의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과거와 현재를 소통하는 예술을 통하여 인문학에 대해 느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 6·25전쟁,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장군 등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인천에서 직접 보고 느껴본다. 아울러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및 시립박물관 탐방과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강연을 통해 인문학



적 상상력이 만들어 내는 화합과 통합의 통일에 대해서도 배운다.

- 내가 살고 있는 이지역의 인문학 文學・藝術・歷史의 강연과 탐방을 통해 단편적으로 인문학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직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며 인문학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

㉠ 대표 특강(3차)

▷ 주제1 : 왜 인문학인가? 인문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강사 : 김병완(김병완미래경영연구소 대표)

관련 주제도서 : 기적의 인문학 독서법(2013) / 김병완

- “왜 인문학 독서인가?” 리더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위한 독서법 강좌
- 인문학 독서법을 위한 우리의 독서습관 개조, 새로운 독서 개발법 이야기

▷ 주제2 : 책을 통해 성장하는 인문학 ‘동화 속에 숨어 있는 우리네 문학과 역사’

강사 : 함영연(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관련주제도서 : 회장이면 다야?(2005) / 함영연

- 동화작가인 강사의 동화창작, 작가로써의 삶에 대한 이야기 및 동화 속에 숨어 있는 문학과 역사에 관한 특강진행

▷ 주제3 : 한국사 및 통일 인문학 이야기

강사 : 김정모(남인천여중 역사 교사), 박윤희(인천인항고 역사 교사)

관련주제도서 :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2010) / 김기협

- ‘내가 알고 있는, 말하고 싶은 역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사 및 통일인문학 관련 특강진행
-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사 관련 주제로 자기 주도적 토론 진행



㉠ 특강 및 탐방

▷ 제1차 : 나를 성찰하는 예술.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삶

강사 : 김종현 (연극집단 ‘삶은 연극’ 대표)

관련 주제도서 :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2014) / 안용태

탐방 장소 : 우각로 문화마을

- 우각로 문화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가와의 만남, 이야기,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인문학에 대한 성찰의 시간 마련

▷ 제2차 : 文學山? 文鶴山?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인천! 찬란했던 이름 미추홀! 어떤 역사와 문학이 잠들어 있을까?

강사 :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시인)

관련 주제도서 : 간추린 인천사(1997) / 김윤식

탐방장소 : 문학산(인천시 남구 문학동 소재)

- 삼국시대부터 개항기까지의 인천남구의 역사유적지 및 관련 문학 이야기
- 문학산 둘레길 코스와 역사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문학산에 관련된 역사 및 문학이야기를 청취

▷ 제3차 : 인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 내는 화합과 통합의 미래

강사 : 임학성(인하대 한국학 연구소 교수)

관련 주제도서 : 근대를 산책하다(2013) / 김종록

탐방장소 : 인천전쟁기념관 및 시립박물관

- 근대 한국 전쟁사(인천) 및 통일인문학에 관한 특강 진행
- 인천전쟁기념관 및 시립박물관 탐방하며 유적지 및 유물을 견학하고 설명을 청취

㉡ 후속모임 : 수봉도서관 201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대표 특강 및 1~3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탐방기 및 감상문 작성, 사진전 및 전시전 개최, 다과회, 차후 동아리로의 발전 등을 의논



㉔ 보충설명

▷ 참여대상(어린이, 청소년, 성인, 가족단위)

- 이번 사업은 다다가기 쉬운 인문학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전 계층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획, 어린이(가족단위)에게는 동화와 역사를, 청소년에게는 역사와 문화를, 성인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 궁극적으로 어떠한 주제이든 인문학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 가능하며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대표 특강+특강 및 탐방으로 구성

- ‘길 위의 인문학’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특강+탐방이 기본으로 이루어지지만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참가자들의 인문학에 대한 개념 확립 등을 위하여 특강+탐방이 진행되기 전에 대표특강을 진행
-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검증된 많은 강사, 작가들이 있지만 이번의 사업의 기획의도에 따라 지역 내 명사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 김윤식(인천출생, 인천문화재단 이사), 임학성(인하대 한국학연구소 교수), 함영연(인천 거주,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 김종현(인천 우각로 문화마을 소재, 연극집단 ‘삶은 연극’ 대표) 등 지역 명사들을 초청하여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명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고 느낄 수 있도록 마련

2) 영종도서관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명 : 『삼사람, 섬을 품은 문학 “섬 그리고 이야기”』

개별주제 : 1. 섬을 걷다-수필(기행문)

2. 섬의 역사를 풀어내다-소설(역사소설)

3. 섬을 노래하다-시

강사 : 강제윤, 김훈, 함민복



① 프로그램 취지

- 영종도서관이 위치한 영종도 “섬”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현재 시민들이 밟고 있는 공간 “섬”을 중심으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 섬을 배경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강연을 듣고, 각 작품이 탄생한 공간 “섬”을 구성하고 있는 환경과 그 곳에서 숨 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 재조명함으로써 “섬”이라는 공간이 지닌 서정과 서사를 함께 풀어가고자 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

㉠ 제1차

- ▷ 주제 : 섬을 노래하다
- ▷ 강사 : 강제운(인문학습원 섬학교 교장, 선 인문학 개척자)
 - 섬 전문가에게 듣는 우리나라 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 그가 섬을 걸으면 남긴 사진, 그리고 그 곳에서 빚어진 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섬에 얹힌 신화, 역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 주제도서 : 그별이 나에게 길을 물었다(강제운)
- ▷ 탐방코스 : 영종도서관-무의도 선착장-실미도 투어-소무의도 투어-영종도서관

㉡ 제2차

- ▷ 주제 : 섬의 역사를 풀어내다 -공간적 섬, 상징적 섬-
- ▷ 강사 : 김훈(작가)
 - 역사소설을 쓸 때 자료수집의 방법, 답사가 주는 집필의 영향에 대한 대화
 - 남한산성 및 집필배경과 작품에 대한 질의응답
 - 작가가 집필 당시에 가졌던 생각, 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강연장소- 남한산성 행궁 좌승당
- ▷ 주제도서 : 남한산성, 흑산(김훈)
- ▷ 탐방코스 : 행궁-산성로터리-북문-서문-수어장대-영춘정-남문-산성로터리



㉠ 제3차

▷ 주제 : 섬을 노래하다

▷ 강사 : 함민복(시인)

-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시인이 되게 된 삶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 시인이 사랑에 빠진 공간 마니산 탐방 및 시가 탄생한 바닷가를 함께 답사

▷ 주제도서 : 말랑말랑한 힘(함민복)

▷ 탐방코스 : 영종도서관-관성보-강화나들길-덕진진-전등사-영종도서관

㉡ 후속모임 : 영종도서관 문학동아리 “섬마을 문학동네” 외 영종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를 초빙, 전반적인 행사의 운영 결과에 대한 좌담회 진행

여행 작가 이종원(「우리나라 어디까지 가 봤니 56」의 저자, 한국여행작가협회 부회장)을 초청하여 의미있는 탐방지의 소개와, 여행하며 글쓰기의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특별초청 강연 진행

㉢ 보충설명

▷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영종도는 주변의 신도, 시도, 심목도,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등 많은 섬들과 접해 있는 섬이고, 갯벌과 숲 등의 자연환경도 두루 갖추고 있음.

▷ 영종도에 다리가 생기기 전부터 자리 잡았던 원주민들과 공항신도시와 하늘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유입된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달라 주민들 사이에 소통의 공감대가 필요한 실정임.

▷ 지역주민들이 밟고 있는 땅 “섬”과 섬을 딛고 있는 사람 “섬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섬과 관련된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에세이스트, 소설가, 시인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섬사람의 정체성을 인문학으로 다독임.

▷ 인문학습원 교장이자 섬 여행가, 에세이스트, 시인인 강제윤은 우리



나라의 섬 300개를 걸으며 섬사람을 기록하고 섬의 모습을 사진과 글로 남김. 그를 첫 번째로 초빙하여 인천 연안의 아름다운 섬을 중심으로 그 동안 촬영한 사진과 여행기를 바탕으로 섬 인문학 강연을 진행함.

- ▷ 고립된 47일 간을 그린 남한산성이 상징적인 고립의 섬의 이미지로 비견되어서 「남한산성」의 저자인 김훈을 초빙하여, 남한산성에서 살아내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적 이야기로 풀어냄.
- ▷ 강화도의 마니산의 매력에 빠져 강화도에 정착한 시인 함민복을 초청함. 그의 시에는 강화의 갯벌, 숲 그리고 강화의 사람들까지 맑고 순수하게 드러나 있음.
- ▷ 후속모임에는 특별 강연으로 여행 작가 “이종원”을 초빙하여 길 위에 남기는 많은 것들, 글 그리고 사진’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함.

3) 꿈벗도서관 2014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명 : 『3인3색(3人3色) 근대개항장 답사기(踏査記)』

개별주제 : 1. 근대개항장 문학관(文學館)

2. 근대개항장 건축기(建築記)

3. 근대개항장 출사기(出寫記)

강사 : 시인 김영승, 건축가 손장원, 사진가 이영욱

① 프로그램 취지

- 지역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 마련을 통한, 인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의장을 제공한다.
- 통합적인 문화해석이 가능하도록 강의와 탐방의 영역을 다양한 분야(문학, 건축, 사진)를 구성하여, 다채로운 인문학적 사유 방법을 제공한다.
-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통섭의 장인 근대개항장 문화지구와 인문학 분야와의 결합을 통한 세상을 읽는 다양한 시각개발의 장을 제공한다.
- 대표적인 근대문화지구인 인천 중구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꿈벗도서관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

㉠ 제1차

▷ 주제 : 근대개항장 문학관(文學館)

▷ 강사 : 김영승(시인)

- 문학에 녹아든 변혁기의 대중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 예술에 대한 통섭의 장 제공
- 문학의 눈으로 바라본 근대개항장의 역사와 문화, 예술 답사기

▷ 주제도서 : 중국인 거리(오정희)

▷ 탐방코스 : 인천광역시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 제2차

▷ 주제 : 근대개항장 건축기(建築記)

▷ 강사 : 손장원(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 건축에 투영되는 인간과 문화
- 근대개항장을 대표하는 인천과 군산 근대건축의 비교답사

▷ 주제도서 : 한국의 근대건축(오창섭)

▷ 탐방코스 : 전북 군산 근대문화유산마을

㉢ 제3차

▷ 주제 : 근대개항장 출사기(出寫記)

▷ 강사 : 이영옥(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출강)

- 현재성(사진)과 역사성(개항장)의 결합에 대한 체험을 통한 일상과 역사의 접점 경험
- 뷰파인더를 통해 바라본 역사의 흐름과 대중의 경험에 대한 접합의 고리 체험

▷ 주제도서 :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건축의 역사(조너던 글랜시)

▷ 탐방코스 : 인천광역시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 후속모임 : 사진 전시회 및 설문조사, 감상문 발표 등

㉤ 보충설명



▷ 제1차 강연 및 탐방

- 인천 및 한국의 근대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인천 중구의 근대개항장을 그린 문학작품의 소개와 문화사, 시대상, 일상사를 문인의 시각으로 통합적으로 서술
- 중국인 거리에 나타난 근대개항장 문화유적의 발자취를 따라 가며,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별 변화상과 문화 예술적 흐름을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인문학적 시각을 공유하는 시간 제공

▷ 제2차 강연 및 탐방

-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과학기술분야인 건축과 관련하여 근대 건축물의 의미와, 건축에 나타난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인간적인 가치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역사와 건축의 결합의 장 제공
- 인천과 더불어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 도시로 평가받는 군산의 근대 문화유적을 탐방, 시대가 가지는 근대 건축적 공통문화유산을 공유함과 동시에 건축과 인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통합적 사고의 장을 제공

▷ 제3차 강연 및 탐방

- 찰나의 미학인 사진가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을 통해, 주체적으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기록하는 인문학적 사고를 배양하며 능동적으로 시대에 참여하는 강연의 장 제공
- 근대개항장 거리를 능동적인 사유로체험하며, 현존하는 모습에 가지는 시대성을 과거의 역사문화가 집약된 공간으로서의 역사성으로 치환할 수 있는 공감의 체험문화의 장 제공

4) 2015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진행 중)

① 영종도서관

①프로그램명 : 인문학, 세대와 세대를 잇다

- ▷ 대표 주제도서 선정: 나를 완성하는 미술관/ 책만 읽는 바보, 다산의 아버님께/ 흙을 밟으며 살다/ 인간이 그리는 무늬



㉠ 기획의도 및 프로그램 구성

- ▷ 문화적 사각지대에 있는 영종도 주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책을 매개로 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 도서관은 정보와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문학과 현실의 삶을 연계하는 프로젝트, ‘인문학, 세대와 세대를 잇다’를 진행한다.
- ▷ 생각하기(청소년), 성찰하기(성인), 공감하기(가족), 나누기(도서관과 지역주민)의 4주제를 선정/ 해당 주제와 연계한 각 분야의 실력 있는 강사 초빙/ 인문학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프로그램 개요 : 영종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 지역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많지 않은 문화적 소외 환경으로, 영종도의 유일한 영종 도서관인 도서관의 사업목표와 독서활동 및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연계하는 방법으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

▷ 제1차

- 주제1 : 청소년, 삶을 생각하다
- 관련 주제도서 : 나를 완성하는 미술관
- 강연 : 10대의 정체성, 가치관을 찾아가는 미술 에세이를 집필한 공주형 작가와의 대화(작품을 쓰게 된 배경과 작가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보고, 청소년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스스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독려)
- 탐방 : 인천아트플랫폼, 근대개항장, 근대박물관

▷ 제2차

- 주제 2 : 성인, 옛사람을 통해 삶을 성찰하다
- 관련 주제도서 : 다산의 아버님께, 책만 보는 바보
- 강연 : 책만 보는 바보, 다산의 아버님께 등 옛 선비들의 삶을 우리 시대에 되살린 안소영 작가와의 대화/ 이덕무, 정약용 등



유명한 실학자들의 삶과 철학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과 우리 삶의 접합점과 배울 점을 공유

- 탐방 : 남양주의 다산 정약용생가(다산의 삶의 흔적과 인생철학을 살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실학박물관 (조선후기 개혁과 자아탐구의 원동력이었던 실학사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다산생태공원

▷ 제3차

- 주제3 : 가족, 자연을 통해 삶을 공감하다
- 관련 주제도서 : 흙을 밟으며 살다, 자연의 밥상에 둘러앉다, 모래알의 사랑
- 강연 :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이야기, 흙을 밟으며 살다를 집필한 윤구병 작가와의 대화/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 자연 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우는 생태인문학에 대한 강연을 진행
- 탐방 : 광릉 수목원(치유의 자연 산림을 활용한 숲 탐방/ 숲 에서 가족과의 교감놀이를 운영, 자연과 가족을 이어주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

▷ 제4차 강연 및 후속모임(예정)

- 주제 : 모두를 위한 철학
- 강연 :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인문학과 삶의 접점을 찾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삶의 방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강연 진행
- 후속모임 : ‘길 위의 인문학’에 함께한 참가자들의 소감과 행사의 전반적인 운영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모임 논의(예정)

㉮ 사업의 기대효과

- ▷ 인문학이 중심이 되어 정보와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의 장 마련
- ▷ 강연과 탐방이 어우러지는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하여 다채로운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는 계기 마련
- ▷ 세대별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주제를 통해 인문학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꿈벗도서관

㉠ 프로그램명 : 3인 3색 근대개항장 시청각(視聽覺) 답사기

“영화(視) · 음악(聽) · 음식(味覺)으로 바라본 인천 중구의 기억”

- ▷ 전체 주제 : 영화, 음악, 음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바라본 인천 중구와 그 속의 숨은 이면을 찾는 근현대사 답사기

㉡ 프로그램 취지

- ▷ 인문학에 대한 주제적인 접근을 위한 다양한 분야 간 통섭의 장 제공
- ▷ 다채로운 사유영역(영화, 음악, 음식)을 통한 통합적인 문화 해석의 틀 제공
- ▷ 개항장 문화지구와 인문학의 결합을 통한 삶을 조망하는 새로운 시각 개발
- ▷ 지역 대표문화지구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성 발현 및 독창성 획득
- ▷ 새로운 주제 분야 발굴을 통한 도서관 문화사업 외연의 확장 추구

㉢ 프로그램 개요

▷ 제1차

- 주제 1 : 근대개항장 영화관(映畫館); 영화 속에 그려진 인천의 이미지를 통해 바라보는 인천의 근현대사
- 관련 주제도서 :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강성률)」 한겨레출판사, 2014
- 강사 : 강성률(영화평론가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 강연 : 영화 속에 투영되어 있는 인천의 이미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인지되고 인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과 일상성을 비교·대조하고, 근대개항장 문화지구와의 접목을 통해 근현대 한국의 문화사 및 일상사를 영화인의 시각으로 통합적으로 서술
- 탐방 : 인천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은막에 새겨진 삶 영화」과 근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근대 개항장 및 인천의 이미지를 돌아봄으로써,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시대별 변화상과 문화·예술적 흐름을 체험적으로 공유



▷ 제2차

- 주제 2 : 근대개항장 음감회(音鑑會); 노래 속에 녹아든 지역주민의 삶과 생활을 통해 바라본 인천의 근현대사
- 관련 주제도서 : 「시공간을 출렁이는 목소리 노래(나도원)」 한겨레 출판사, 2012.
- 강사 : 나도원(음악평론가 / 작가)
- 강연 : 노래와 음악 속에 녹아든 인천 지역주민의 삶의 궤적을 찾아 봄으로써, 일반 대중이 삶의 공간으로 체감하며 살고 있던 인천의 근현대사를 유추하고, 지역적 특수성과 음악적 독창성을 통해 음악인으로 바라보는 인천을 서술
- 탐방 : 인천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시공간을 출렁이는 목소리 노래」와 대중음악 속에 녹아든 인천과 근대개항장의 공간을 찾아감으로써, 노래와 음악 속에 그려진 일반 대중의 삶과 역사를 유추하고 돌아보는 공감의 장 제공

▷ 제3차

- 주제 3 : 근대개항장 미식회(美食會); 인천을 대표하는 맛과 음식을 통해 바라본 인천 민초들의 근현대사
- 강사 : 최희영(작가)
- 관련 주제도서 : 「삼치거리 사람들(최희영)」 최희영 저, 썰물과밀물, 2014.
- 강연 : 인간 삶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먹거리에 얽힌 인천 대중들의 모습을 통해, 인천 음식문화 및 음식물이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인천 및 한국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기회의 장 마련
- 탐방 : 인천 근대개항장 문화지구
「삼치거리 사람들」과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문화 탐방을 통해, 음식으로 구현된 일반 대중 및 민초들의 삶의 기억과 역사의 흔적을 찾아가는 문화체험의 현장을 제공



▷ 후속모임

- 주제 : 근대개항장 시청각 답사기 뒷이야기
- 내용 : 「길 위의 인문학」참여자 사진 및 탐방기 전시전

㉮ 사업의 기대효과

- ▷ 지역문화지구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주체적 사유계층 발굴
- ▷ 다양한 분야의 인적 강사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도서관 문화사업 역량 재고
- ▷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서관 핵심 이용계층 양성

2. 도서관별 기획 인문학 프로그램

1) 수봉도서관

① 수봉 2014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인문학으로 행복한 상상하기”

▷ 운영취지

- 방학기간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여름방학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 개설·운영
-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 간 소통 강화와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진흥 도모

㉠ 주제별로 보는 역사 프로그램

- ▷ 운영대상 : 지역 내 초등학교 3~4학년
- ▷ 운영내용 :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조를 중심으로 한 역사와 시대별 문화재 특징 알아보기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차시	구분	주제	내용
1	8/5	선사시대와 “고조선”	역사와 인류의 시작과 최초의 나라 고대국가의 형성과정 알아보기
2	8/12	삼국, 고려, 조선을 세운 왕들의 이야기	왕조의 시조를 통해 본 나라의 형성
3	8/19	문화재로 살펴보기 1	암각화 -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 고분벽화 - 무덤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 백제금동대향로, 첨성대 - 하늘을 관측하던 천문대
4	8/26	문화재로 살펴보기 2	불교 - 불교의 전래, 석탑, 불상 도자기의 역사 -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궁궐 - 왕들은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 “나를 찾아 떠나는 청소년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 운영

▷ 운영대상 : 지역 내 중학교 1~3학년

▷ 운영내용 : 인문학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인문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는 토의 토론형 수업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차시	구분	주제	내용
1	8/5	나에게 집중하기	1. 공동체 수업을 위한 활동 : 게임과 오리엔테이션 2. 나를 인터뷰하다 : 올바른 자아 인식 찾기
2	8/7	인문학 초대하기	1. 미니강의 : 인문학의 의미와 범주 이해하기 2. 토의토론 : 청소년에게 인문학의 의미 찾기
3	8/12	아름다운 가치	1. 미니강의 : 행복과 연봉의 상관관계 2. 토의토론 : 행복과 돈에 대한 가치 “공평과 부자세”
4	8/14	내가 역사야	1. 미니강의 : 역사 다시보기 - 세종대왕을 질투하라 2. 토의토론 : 역사드라마 역사적 사실 vs 상상력



㉠ “주제별로 읽는 논어” 프로그램 운영

- ▷ 운영대상 : 지역 내 청소년 이상 누구나
- ▷ 운영내용 : 학(學), 효(孝), 인(仁), 예(禮)라는 네 항목의 주제를 갖고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사상을 알아보기
-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차시	날짜	주제	내용
1	8/1	學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의 길, 오직 죽음으로써만 끝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學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2	8/8	孝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며, 공자에게 있어 국가 질서라는 것은 결국 가족 질서의 연장에 불과했다.
3	8/22	仁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 같은 사람끼리 그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仁이다.
4	8/29	禮	인간은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양한 관계를 어떤 범주로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 그것이 禮이다.

㉡ 자체평가

- ▷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을 매개로한 소통과 통합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진을 통한 도서관(평생학습기관) 학습 커뮤니티 형성 및 배움에 대한 행복지수 상승
- ▷ 방학기간 강좌운영 요구에 따른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상승
- ▷ 문화사업 운영을 통한 잠재적 이용자 발굴 및 도서관 이용률 증대
- ▷ 인근 학교의 여름방학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참여인원 감소

② 수봉 2014년 여름방학 학부모특강 “자녀교육! 인문학으로 준비하다”

-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을 위한 여름방학 학부모



특강 기획 운영

(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와 함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 진학을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사)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재능기부)

- ▷ 운영대상 :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 ▷ 운영내용 : 동서양 고전과 인문학을 통한 독서활동으로 수시 준비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독서활동을 통한 진로 진학 준비하기
- ▷ 사업배경 및 목표
 - 입시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 필요성 증대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별 프로그램 및 특강 필요성 대두
 - 학부모에게 올바른 입시 준비에 대한 교육을 통한 지역과 함께하는 도서관 이미지 제고
- ▷ 자체총평
 - 입시 준비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자리 마련으로 적은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에 대한 높은 평가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 진학을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도서관 이미지 제고
 - 평년보다 짧은 여름방학 기간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참여자 모집이 현저히 저조하여 당초 8. 20(수) 일정을 8/27(수)로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저조
 - 프로그램 및 특강 운영 시 다수의 참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의 모색이 필요

③ 수봉 2014년 인문학 특강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

- ▷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문학 특강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 개최
작가와의 대화 및 독서토론회를 결합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소통하는 독서환경 조성 도모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적 행사 아
이템 추진을 통한 독서계기 마련
-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홍보와 이를 통한 독서문화생활에 기여함으
로써 공공도서관의 위상 제고
- 초대작가 :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임진왜란 이야기』

▷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임진왜란의 역사적 진실과 오류에 대해
일본의 객관적인 사료를 비교분석하여 밝혀낸 박희봉 교수와의 대화

▷ 자체평가

잘된 점

-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인문
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개선
- 작가와의 대화 및 독서토론을 결합한 주민참여형 운영을 통한 함께
소통하는 독서환경 조성
-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잠재적 이용자 발굴 및 도서관
이용률 증대
- 독서문화 진흥의 기반제공 및 다양한 독후활동 기반 향상

개선할 점

-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시 적절한 운영 시간에 대한 검토 필요
- 주말 오전 시간대 운영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
- 작가 및 이용자 이용 시간대를 고려한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필요
- 다양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 한시적인 1회성 인문학 특강이 아닌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특강 운영 필요

-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 제공을 통한 인문학과 친숙함과 독서환경 조성 도모

④ 수봉 2015년 인문학 특강① 터키편 “터키를 만나 세계의 절반을 보다”

- ▷ 초대작가 : 광영완 작가(재능기부) 『터키에서 읽는 로마사(잃어버린 천년의 역사)』 (20년 동안 일간지기자로 활동, 現 (도서출판 애플미디어 대표 겸 작가

『터키에서 읽는 로마사』, 『이스탄불의 황제들』, 『IS, 지하디스트 그리고 이슬람』 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적 행사 아
- 이템 추진을 통한 독서계기 마련
-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홍보와 이를 통한 독서문화생활에 기여함으
- 로써 공공도서관의 위상 제고

▷ 진행순서

- 세계 30여 개국을 방문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왜곡과 분쟁으
- 로 점철돼 있는 중동사와 유럽사 중 “터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

▷ 자체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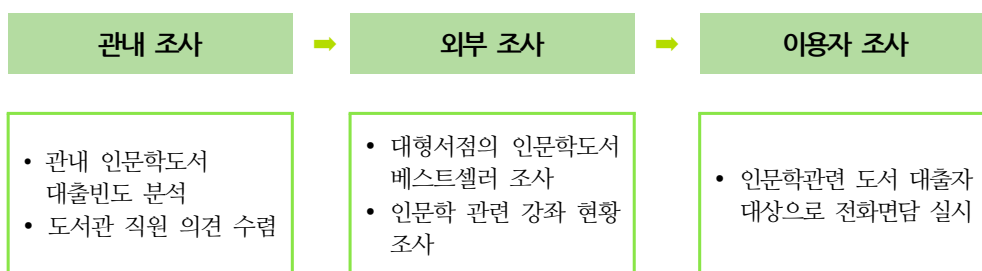
- 지역주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인문
- 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개선
- 작가와의 대화 및 독서토론을 결합한 주민참여형 운영을 통한 함께
- 소통하는 독서환경 조성
-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잠재적 이용자 발굴 및 도서관
- 이용률 증대
- 독서문화 진흥의 기반제공 및 다양한 독후활동 기반 향상
- 한시적인 1회성 인문학 특강이 아닌 지속적인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 특강 운영 필요



2) 영종도서관

① 『영종도서관 인문학 강연』 인문학과 밀고당기기 -도서관, 인문학 씨를 뿌리다-

- ▷ 인문학 관련 주제 및 저자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 강연 개최
- ▷ 대상 :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청소년 이상)
- ▷ 주제 선정 과정



▷ 인문학 강연 주제 : 사람

- 사람(사전적 의미) :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 인문학 기본 강연이므로 인문학 입문부터 시작하여 인문학 강연 주제를 다룸

차시	일시	주제		저자	관련 도서
1차	6. 19.(목)	인문학 입문	왜 인문학을 시작해야 할까?	주현성	지금 시작하는 인문학
2차	7. 17.(목)	사회 (역사)	인문학의 눈으로 역사 바라보기	김경집	인문학은 밥이다
3차	9. 18.(목)	도구	몸과 인문학	고미숙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
4차	10. 16.(목)	생각 (철학)	생각하는 인간, 사유하는 삶	이진경	삶을 위한 철학수업
5차	11. 20.(목)	언어 (구비문학)	전해지는 이야기, 판소리의 모든 것	송혜나	쑥대머리 귀신형용



▷ 설문조사 분석(설문지 평균 회수율 : 71.7%, 5회 평균)

-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소년 이상 대상 도서관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남성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 40~50대 이상의 비율이 전체의 78.6%로 대부분을 차지
- 강연에 대해서 92.4%가 만족 이상의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
-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92.6%가 만족 이상의 답변을 함.
 - 강사의 관점과 본인의 생각 간의 차이를 불편하게 생각한 경우가 있어 불만족이 1.8%로 나타남.
- 철학 → 역사 → 심리학 → 문학 → 생태학 순 등으로 주요 관심사가 나타났으며 전통문화, 주거생활, 음식 인문학 등 다양한 관심 분야를 나타냄.
- 초청하고 싶은 작가 중 김경집, 고미숙 작가는 2014년 인문학 강연을 진행했던 작가로 참여자들이 이 작가들의 강연이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 참여자들은 인문학 강연에 대해서 지속하길 바라는 것과 인문학 강연이 개설되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함.

▷ 총평

-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남성의 참여비율이 타 프로그램 및 행사에 비해 두드러짐.
- 인문학 강연 계속 참여자가 운영을 거듭할수록 늘어났으며, 관내 인문학 도서에 대한 관심 환기시킴.
- 일부 참여자의 경우 인문학 독서동아리 구성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2015년 관련 동아리 구성 예정임.
- 인문학 도서 읽기를 통한 독서 가치 확산의 계기 마련
-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한계성 극복
- 프로그램 기획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전 조사로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 야간시간 대에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원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



- 2015년 인문학 강연 예산 삭감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우므로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 필요
- 추후, 인문학 강연 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2015 성인 인문학 독서동아리 『생각이음』 결성

㉠ 회원수 : 10명

㉡ 모임날짜 : 매월 둘째주(목) 10:00 ~ 12:00

㉢ 활동 및 내용

▷ 1회, 4월9일

- 주제 : 성인 인문학 독서동아리 ‘생각이음’ 오리엔테이션
- 주제도서 : ‘인문학’의 개념에 대한 페이퍼를 공유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대신

- 활동내용

- ‘인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공유/ 향후 동아리에서 다뤘으면 하는 인문학 도서 준비하여 다음 모임에서 소개하기(간단한 서지 사항 및 추천이유 등)
- ‘생각이음’ 동아리 운영의 진행방식 및 연간운영 계획
- 나눈 이야기 : 사전적 의미에서의 ‘인문학’이란? / ‘인문학’ 용어 정리 / 동아리 구성원 각자가 생각하는 ‘인문학’이란?

▷ 2회, 5월14일

- 주제 : 진짜 인문학을 찾아서
- 주제도서 : 『희망의 인문학』 얼 쇼리스, 이매진, 2009.

▷ 활동내용

- 작가소개, 작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주요 문단 공유 및 작품 소개)
- 나눈 이야기 : 토론도서 읽은 후의 간단한 소감 공유/ 정치적인 삶 →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안티고네와 인문학의 연관성/ 인문학은 이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 희망의 인문학’속 클레멘트코스의 대상인 빈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



㉔ 총평

- ▷ 가칭이었던 동아리명 ‘생각이음’을 공식 명칭으로 결정
- ▷ ‘자발적 동아리’를 강사에 의한 진행, 즉 정규 문화프로그램과 같은 ‘강의식’으로 잘못 알고 오신 분들을 위해 동아리의 생성 이유 및 목적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함.
- ▷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동아리 회원 및 타 지역에서 오랜 시간동안 독서동아리를 참여하셨던 회원 등 다양한 이력의 구성원이 있어, 인문학 동아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
- ▷ 구성원 모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향후 토론도서관의 선정, 발제자 등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됨.
-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확산 방지 등에 따라 동아리 일정을 연기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며, 연기된 동아리를 8월로 연기함.

3) 율목도서관

① 율목도서관 인문학프로그램 「비움+채움」

- ▷ 책과 사람을 통해 교감할 수 있는 율목도서관 만의 특화 프로그램인 인문학프로그램 「비움+채움」의 운영을 통해, 지식습득의 책 읽기를 넘어 누구나 일상 속에 인문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지역 문화 공동체를 구성
- ▷ 사업배경
 - ‘책 읽는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책 읽는 문화 조성 적극 수행
 - 주간 및 주말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의 참여 요구 반영을 통한 야간프로그램 강화
 - 지역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따른 지역 사회의 독서·문화 진흥
- ▷ 사업목표
 - ‘소통, 배려, 교감’을 기반으로 한 율목도서관의 독서진흥 비전 제시
 - ‘비움+채움’이라는 율목도서관만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 브랜드화
 - 새로운 지식·정보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문화의 장 구현

▷ 기획의도: 삶이 있는 저녁, 도서관 인문학 ‘비움+채움’

-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채워야 비울 수 있다는 인문학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비움+채움」은 각 화두에 따라 인문학적 삶을 살아가는 길에 대해 저자(전문가)를 통해 듣는 시간으로 구성, 지역 주민들과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기획
- 특히, 주간 및 주말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저녁시간 대 특별프로그램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충족시키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
- 년도별 차별화된 주제 선정을 통한 울목도서관 만의 인문학프로그램 ‘비움+채움’ 고유 브랜드화

년도	주제
2012	8개의 인문학 화두(本, 教, 食, 和, 心, 愛, 樂, 成)
2013	의(衣)식(食)주(住)
2014	교양만화의 새로운 발견

㉠ 2014년 인문학 프로그램 「비움+채움」

▷ 주요 테마 : 교양만화의 새로운 발견

- 2014년 3화째의 「비움 + 채움」에서는 <교양만화로 만나는 인문학>을 테마로 탄탄한 스토리와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한 국내 만화작품을 소개하고 그 안에 담긴 인문학적 요소를 대중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을 시도
- 만화와 인문학이라는 결합을 통해 새롭게 시도된 인문학 프로그램의 시너지 효과 발휘
- 만화 안에 담긴 인문학적 요소 찾기란 ‘웹툰’ 작가들이 심리학, 고고미술사 전공 등 출신배경이 다양하거나 자신들의 일상과 삶에 대해 가감 없이 표현하거나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특정 소재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문가 감수 등이 활발한 만화생태계



의 변화 속에서 가능하였음.

- 장르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계층의 유입 및 참여 연령대가 다양해짐
- 출판사 협조를 통한 인터넷 서점 공동 홍보 및 접수, 작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지역 인터넷 방송국에서의 강의 전체 촬영을 통한 콘텐츠 개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협조를 통한 작가 섭외 및 관내 전시(11월, 박건웅 작가) 등 프로그램 운영상의 다양한 시도

회차	일시	화두	해당도서	초빙 강사
1	4. 17(목)	심리학	닥터프로스트	이종범
2	5. 22(목)	귀촌	불편하고 행복하게	홍연식
3	6. 19(목)	종교, 세계사	십자군 이야기	김태권
4	9. 18(목)	미술사, 문화재	도자기	호연
5	10. 16(목)	전통주	대작	허시명
6	11. 20(목)	근현대사	그 여름날의 기억	박건웅

▷ 자체평가

- 연속 기획으로 6회에 걸쳐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텔링을 담은 우수 교양만화 작품들을 소개하여 각 작품이 가진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풍부한 상상력, 전문지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 ‘만화와 인문학’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결합을 통한 창의적인 문화 융합프로그램 운영
- 예술장르의 하나로 인정받은 동시에 주요 콘텐츠 자원으로서 드라마, 영화 등으로 제작되어 성공적인 흥행이 나오는 등 앞으로의 문화산업 주요 콘텐츠로 부각되는 ‘만화장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함.
- 당초 11월 비움+채움 특강강사로 예정된 주호민 작가(〈신과 함께〉- 한국신화)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특강강사를 2014부천만화대상 수상자인 박건웅 작가로 변경하여 추진
- 부제인 ‘교양만화의 새로운 발견’처럼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자에게 교양만화에 대한 새로운 면을 소개하고, 새로운 지식정보 매체



로서 접근을 시도했던 점에서 의의가 큼.

- 관련하여 지속적인 만화 콘텐츠에 대한 소개와 인식개선을 위한 일 반자료실 내 우수만화코너가 신설

② 2015년도 인문학 프로그램 「비움+채움」

▷ ‘비움’을 주제로 <삼치거리 사람들> 저자 최희영 작가 특강 운영

- 삼치거리 사람들 : 삼치 공동체,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 동인천은 한때 인천에서 가장 변화가였지만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거리로 변하고 말았고, 그래서 삼치거리 사람들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둘러앉아 지해를 짜냈다. 식당 상호 간의 경쟁은 없애고, 삼치와 막걸리는 공동으로 구매해 뛰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내 것보다는 우리, 이익보다는 사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리를 만들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싹튼 그들의 공동체를, 간과할 수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 우리 지역 사회 내 위치한 중구 전동 ‘삼치거리’가 조정된 유래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 부유했던 어린 시절,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억척스러웠던 어머니, 사회인으로서의 자존감 높았던 청춘 등 작가 생애를 관통했던 ‘비움’과 삼치거리 사람들이 보여준 ‘비움’을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음.
- 치유를 뜻하는 ‘힐링(Heal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소유에 대한 내 려놓았다, ‘비움’으로 이동하면서 외부 기관 및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음.
- 우리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삼치거리 사람들’에 대한 중구 지역민들의 관심과 희망을 재발견할 수 있었고, 인천 지역 외 서울, 안산, 대구 등에서 참여하여 인천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제공함.



▷ 자체평가

- 2015 세계 책의 수도를 맞이하여 율목도서관이 위치한 인천 중구 지역 사회 내 형성된 ‘삼치거리’를 재조명함.
- 서민들을 위한 싸고 푸짐한 안주와 인심 속에 담긴 삼치거리 사람들의 ‘비움’의 정신을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욕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됨.
- 최희영 작가의 2시간 전 장소 확인과 철저한 강연 준비(뽐뽐하게 적어온 강연자료 등)를 통해 시종일관 여유롭게 자연스러운 강연을 진행,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 매년 진행한 ‘셋째 주 목요일’이 4·16 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가 겹치게 되어 최소한의 홍보활동을 진행함.
- EBS 작가팀에서 강연 촬영 및 방영에 대한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1주기와 겹치게 되어 내부 사정에 의한 촬영 취소되었으나 향후 특강 촬영에 대한 요청 채널을 확보함.

Ⅲ. ‘길 위의 인문학’의 장점 및 문제점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이 지역특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향토심 고취 및 향토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각 도서관의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지역 주민과 함께 하고 이러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선도하며, 도서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탐방 등 도서관 이용자 및 주민들이 직접 걷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 간 유대와 소통을 이룰 수 있고, 도서관을 이해하며 지속적인 도서관 이용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도 어렵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인문학 프로그램이 언제나 만족하게 성공할 수만은 없을 터이다. 장단점과 애로사항 및 문



제점을 돌아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문학 프로그램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 수봉도서관

1) 장점

- ① ‘다가가기 쉬운 인문학’을 주제로 강연 및 탐방을 운영하여 인문학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 ② 야외에서 진행되는 탐방을 통해 도서관과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 ③ ‘길 위의 인문학’의 운영이 다른 인문학 사업, 프로그램 등의 부흥을 도왔으며 인문학 관련 모임이나 강의 요구 등이 증대되었다.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 예산문제 등으로 양질의 강사섭외의 어려움 - 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의 어려움 - 공모사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단발적인 사업진행)	-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양질의 강사섭외 및 이용자가 원하는 강사 초청 가능 - 탐방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 참여층 확대, 인문학 관심 증대 - 3차시에 걸쳐 연중 진행되므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신뢰도 및 관심 증대

2) 문제점

- ① 지속적인 사업의 어려움이 크다.

사업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차후 지속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공모사업이 중단되거나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도서관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적어도 3년 이상 진행하여 도서관 및 지역사회, 또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시간이 필요하다.

2. 영종도서관

1) 장점

- ① 섬 이야기를 통해 영종지역에 최근에 유입된 이용자와 토박이 주민 간 예전의 섬이야기와 최근의 섬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 ② 오프라인 및 대내외 홍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활한 참가자 모집이 진행되었다.
- ③ 주제에 맞는 각 분야의 저명한 작가를 초빙하여 몰입도가 높았고, 탐방지에 대한 강연자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길 위의 인문학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탐방이 진행되었다.
- ④ 전 과정 전담자의 운영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예기치 않은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주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빠른 업무 처리로 돌발상황에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 ⑤ 주관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 사업 운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운영이 수월하였다.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 원주민과 신도시 이주민의 소통의 기회가 부족 -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유구가 많음	- 섬을 주제로 대화의 계기 마련 - 탐방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충족

2) 문제점

- ① 우수한 강사진의 강연과 탐방프로그램의 통합운영으로 참여요구가 높아 이용자의 참여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했다(접수 모집 당일 20분도 안 되어 마감되 됨).
- ② 공모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고, 고액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자체 사업 운영은 더욱 어렵다.
- ③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이 다음 해의 프로그램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 ④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으로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 운영지침의 변동으로 다소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3. 꿈벗도서관

1) 장점

- ① 역사문화지구 특화 인문학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지역의 고유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 ② 다양한 분야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인력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도서관 문화사업의 확대를 성취하였다.
- ③ 도서연계(독서유도), 이용자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문화사업 및 독서문화진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였다.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사기획 난항 - 비예산사업으로 행사내용 부실 초래 - 전문강사 섭외 불가로 인한 강연의 질 하락	- 예산확보를 통한 인천·군산 간 비교 탐방 - 전문강사 운용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대 - 참신한 기획 실현 및 인문학 강좌 진행 노하우 습득

2) 문제점

- ① 예산 교부 및 집행 방법에 대한 간편한 변화가 필요하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예산문제와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그러나 예산이 허락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산문제가 넘을 수 없는 태산이다. 예산지원이 없을 경우 계속적인 사업의 운영이 어렵고, 각 도서관의 자체예산으로는 양질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IV. 향후의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1. '길 위의 인문학' 운영을 통해 본 발전방향

1) 강사지원 문제

- 지속적으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어려운 도서관(예산문제)을 위해 자체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는 강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서관에서 원하는 강사 등을 강사료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
- 강사 및 탐방 인력풀 개발을 통한 우수강사의 지원 및 육성, 시민들의 지속적 요구수렴과 강사진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2)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기간 확장

- 한 번 선정된 도서관들이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기간을 확장(3년 내외)시켜 준다.(매년 평가를 통하여 사업지원여부 파악)
- 참여도서관들이 자체사업으로 흡수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이 아닌 우수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의 브랜드화가 필요

(주최·주관기관에서 사업에 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홍보 및 운영지원 확대)

4)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운영의 노하우 축적을 통한 도서관형 인문학 탐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5) 운영 도서관 간 연계를 통한 상호 지역답사 등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 필요

6) 「길 위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후속모임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인문학탐방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마련이 필요

7) 주제 및 이동거리에 따른 장기간의 탐방이 요구될 때는 여유 있게 시간을 활용하도록 숙박의 필요성도 제기



2. 융·복합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획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르려면 인문학의 개념을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문학을 너무 좁은 범위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문학의 정의를 ‘인문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분야이다’라는 정의를 택하고 보면 모든 학문을 인문학의 범위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어떤 학문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각의 학문과 통해 있으므로 언어(학), 문학, 역사, 법률, 철학, 고고학 등의 모든 학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실에 있는 책상을 예로 들어보자. 수학자의 눈으로는 수학으로 정의를 내리고 과학자의 눈으로는 과학으로, 또 문학의 눈으로도 책상을 정의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본다고 하더라도 수학자는 책상의 크기를 보고 가로 세로가 얼마이고 따라서 넓이가 얼마인가 계산해 낼 것이고, 과학자는 책상의 성분을 분석하고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낼 것이다. 책상을 디자인하는 사람(예술가)이라면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는지 예술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며, 문학을 하는 사람은 그 책상에서 누가 어떤 글을 써냈을까 또는 그 책상을 사용하던 문호가 누구였을까를 상상하고, 역사학자는 그 책상이 도대체 몇 년이나 되었을까 누가 사용했던 책상일까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피자 한 판을 가지고도 몇 명이 어떻게 나누어 먹을까를 찾는 것은 수학이 되고, 피자가 만들어진 식재료라던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얼마나 될까를 찾는 것은 과학자의 일이고, 어떤 생일 파티에서 얼마나 맛이 좋은 피자를 누구누구랑 나누어 먹었는가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이다. 이 모두는 ‘사람’ ‘인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드러다 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인문학도 있겠지만 골목을 탐방하는 골목인문학도 있을 수 있고, 그림과 도자기 등과 같이 예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다면, 반대로 예술성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기계와 기술을 다루게 되는 공업(학)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획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책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를 보면, 사과 하나를 보는 눈도 보는 사람에 따라 100가지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과 사건에서 인문학적 요소를 찾아내야 할 것이고, 찾아낸 그 인문학적인 요소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창조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인문학을 모든 학문과 융·복합으로 엮어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기획을 도서관에서 수행한다면, 이것이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길 위의 인문학’이 마치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대명사처럼 정착되었듯이, 도서관은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별도서관의 예산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하여 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수봉도서관 201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영종도서관 201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결과보고서
영종도서관 2015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계획서
꿈бет도서관 2014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꿈бет도서관 2015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계획(안)

수봉도서관 2014 여름방학 프로그램 ‘인문학으로 행복한 상상하기’ 운영결과보고
수봉도서관 2014 인문학 특강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인진왜란 이야기’ 운영결과보고
수봉도서관 2014 여름방학 학부모특강 ‘자녀교육 인문학으로 준비하다’ 운영결과보고
수봉도서관 2015 인문학 특강① 터키편 ‘터키를 만나 세계의 절반을 보다’ 운영결과보고
영종도서관 2014 인문학 강연 ‘인문학과 밀고당기기’ 연간운영 결과보고
영종도서관 2015 성인 인문학 독서동아리 상반기 운영결과보고
울목도서관 2014 인문학 프로그램 ‘비움+채움’ 운영결과보고
울목도서관 2015 4월 인문학 프로그램 ‘비움+채움’ 운영결과보고

네이버 사이트 지식백과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전망과 제언

이상복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사업전망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수행 3년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사업으로 성장했다. 사업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볼 때 참여자프로그램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5이상, 재참여 의향이 89.4%, 추천의사도 97%로 압도적인 만족과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2015, p.vi)이 이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업수행 담당자들도 프로그램 결과에 만족하고 재참여 의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업의 성공을 짐작할 수 있다.

동 사업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인문학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의 영향일 수 있겠으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문정신 진흥이라는 국정기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지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도서관협회의 체계적인 지원·관리·감독 그리고 공공도서관 관장 및 담당사서의 열정과 관심이 함께 이루어 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동 사업은 상대적으로 인문학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시민들에게까지 가까운 거리의 인문학 현장을 탐방함으로써 애향심을 북돋우고 인문학의 속살을 접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도서관 인문학 포럼 2013, p33)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



도서관을 인문학 보급의 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문학을 통한 독서문화 증진과 독서토론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특정 정권과 정책을 초월해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할 것 이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II. 사업발전을 위한 제언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정부와 한국도서관협회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국민들의 인문정신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힘을 쏟은 훌륭한 사업이다. 동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세부 실행에 있어서 흠 잡을 데는 없으나 앞으로 더 발전된 사업성과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1) 인문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위한 기획능력배양

매년 공공도서관의 사업담당자들은 익년도 인문프로그램 기획에 고심하고 있다. 벌써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가는 상태일 것으로 추측된다.

동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인문학 향유와 지역문화발전을 목표로 두면서 동시에 사업 본부가 요구한 지역성, 대중성, 현장성에 충실한 주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업4년차인 익년부터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제고를 위한 인문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사전전문교육은 담당자에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접근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며 프로그램 기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 프로그램 참여 계층의 다양화

동 사업에 관한 사업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인문프로그램의 참여계층은 주로 공공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주부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은퇴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공공도서관으로서는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문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학 대중화가 목표일 것이다. 이러한 사업취지를 감안할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표고객집단의 계층 확대는 본 사업의 지속적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참여계층의 확대를 위해 도서관의 적극적 이용자 보다는 잠재적 이용자 또는 비 이용자에게도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유도 해야 할 것 이며, 특히 정보·문화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본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은 인문학과 도서관을 쉽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보다는 삶에 지친 서민 계층이나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소수계층, 즉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인, 새터민 등 일 것이며 이들 계층의 사람들을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주류 사회에 진입시키는 사회통섭(social inclusion)의 역할이 본 사업의 근원적 목표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계층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 이다.

3) 사업의 사전홍보 강화

현재 본 사업 참여자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홍보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도서관내 플랜카드(포스터), 도서관SNS, 지역신문/잡지/방송, 가족·친구·지인소개, 회원 이메일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2015, P74). 이러한 홍보방법은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 까닭은 도서관의 적극적 이용자만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도서관에 와서 플랜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일 것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나 주관부서에서 공익광고형태로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사전 홍보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지역공공도서관에서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 본 사업을 사전 홍보하는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일정부분 홍보비를 배정하고 그 액수의 상한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에도 본 사업에 대해 기획기사, 취재기사 등을 통해 일정부분 홍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후 결과에 대한 평가와 사후 홍보에 치우치는 점이 없지 않아 참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사업 시행 전의 다중매체 홍보가 프로그램 참여 확대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4) 도서관 소프트웨어 공유

도서관은 건물개념의 하드웨어와 자료개념의 소프트웨어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현재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진행을 주도하는 각 도서관에서는 참가자 모임과 강연 장소로서의 거점으로, 소극적인 하드웨어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듯 하다.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은 바꾸지 않지만 지식의 보관과 공유 방식은 바뀌고 있다. 도서관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활동양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활용했으면 한다.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는 본 사업의 성취도에 따라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시설이라는 인식 제고와 그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통해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울러 도서관 문화진흥사업과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융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토론문

-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토론문
송치욱 | 도서관발전재단 기획위원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토론문¹⁾

송치욱 | 도서관발전재단 기획위원

이번 포럼은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2013년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시행된지 3년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며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보기’, ‘해외사례를 통해 보기’, ‘현장에서 비교해 보기’, ‘전망과 제언’이라는 포럼의 틀은 <길 위의 인문학>으로 대표되는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더 나은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정이라 생각한다.

성해영 교수는 도서관을 주목해 ‘상상하고 사유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도서관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 발굴 등을 통해 보다 본질적으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서관이 더 이상 지식을 축적이라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축적된 지식정보를 요청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적극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적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인문학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이 능동

1) 이번 포럼이 학술적인 주장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이번 토론에서는 발표의 내용을 따지기 보다는 발표들에서 제기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에 집중하기로 한다.

적으로 인문학적 사고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등의 성과를 만들기에 부족한 단순 강의형이 많으며, 외국의 역량개발프로그램 위주인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²⁾ 또 일회성 방식에서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 한다는 지적은 그 동안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이기에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장사년 관장과 송영숙 관장은 도서관 현장에서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 등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도서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다양한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서 등 담당자들의 노고가 잘 드러났다. 특히 프로그램 진행 후 사진이나 후기를 전시하거나 ‘독서모임’ 등 지속적인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 등은 <길 위의 인문학>의 구체적인 성과이며, 인문학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복 교수는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업담당자들의 기획능력이 배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층의 다양화, 사전홍보의 강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이 점은 그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왔음에도 아직도 과제라는 점에서 계속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이 시민들의 인문정신을 함양하는 핵심기관으로 성장하고, 모든 세대나 계층이 함께 아우르는 도서관이 사회통합에 기여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2) 지금은 지식의 전달과 수동적인 수용방식의 공부가 일상화 되었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점을 비판하는 전통도 있다. 조선 중기 퇴계와 더불어 종장(宗匠)으로 명칭되었던 남명 조식 선생은 “넓은 도회지 큰 시장을 두루 돌아다니면, 금은(金銀)이나 보배(珍玩)가 없는 것이 없다. 하루 종일 거리를 오르락 내리락 그 값을 물어보아도, 끝내 제 집의 가장물(家藏物)이 되지 않는다. 나의 한 필의 베(布)로써 고기 한 마리 사오는 것만 못하다. 지금의 학자로서 고담준론으로 성리를 말하면서 자기에게 실제의 득이 없는 사람이 어찌 이와 다르겠느냐?(先生曰 遨遊於通都大市中金銀珍玩 靡所不有. 盡日上下街衢而談其價 終非自家家裏物. 却不如用吾一疋布 買取一尾魚來也. 今之學者 高談性理而無得於己 何以異此.)”는 말을 하셨다. 인문학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강의만 많이 듣는 다고 해서 인문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들어서 얻은 귀에 걸린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능동적 고민과 성찰을 통한 책읽기, 쓰기, 토론, 답사 등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다. ‘재미와 깊이’를 함께 추구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고 다양한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³⁾

이러한 발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의할 점을 제안할 수 있겠다.

첫째, 인문학 프로그램의 ‘일회성 문제’이다.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처럼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많은 인문학 프로그램도 역시 일회성 강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길 위의 인문학>도 비록 책을 선정하고 탐방하도록 해 단순 강연과는 약간 다르게 운영하지만, 장기 지속적인 프로그램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단년도 공모프로그램으로 지원관에 선정되지 않으면 결국 1회성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년도 사업을 다년도로 보장할 방법도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넘치는 수요에 비해 프로그램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도서관 현장에서는 매회별로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이상복 교수의 참여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면, 아직은 더 많은 사람이 짧지만 인문학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 도서관에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기도 하다. 장기적 프로그램을 주관사업자(현재 한국도서관협회)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장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였으나, 실현되지 않은 것을 보면 현장에서는 기존의 틀을 더 선호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정광렬 연구원의 지적과 같은 역량개발형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 사서의 노력이 더 요구되고, 참여자의 수요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과연 현장에서는 수용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후속모임’의 강화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진행하고

3) 도서관 이용율은 30%대에 불과하다(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30.3%, 15세 이상은 32%). 스웨덴 74%, 덴마크 63%, 영국 47%에 비해서는 낮다. 도서관이용율의 증가가 국민 독서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책읽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인문학 진흥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늘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있는 ‘후속모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인문학 독서모임’ 또는 ‘인문학답사 모임’ 등으로 발전시키고, 이 모임이 자발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도서관의 다른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현장과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는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겠다.

둘째, 도서관 및 사서의 기획력 배양 문제이다. 성해영 교수가 지적한 바처럼 도서관은 인문지식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상복 교수의 지적대로 몇 년 거듭해 오면서 기획 소재가 고갈될 수도 있는데, 이 모두가 사업들 담당하고 있는 사서와 도서관들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 교수는 사전전문교육을 제안하고 있으며, 정광렬 연구원은 기획이나 교양교육 전문사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고민되는 점은 사전전문교육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⁴⁾ 또 전문사서제도의 도입은 또한 장기적인 문제다. 사전전문교육은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3~4월 주관사업자 선정 직후 바로 공모를 받아 선정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행할 ‘사전(事前)’적으로 진행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장의 사서들이 여러 번에 걸쳐 교육받을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토론자는 인문학 프로그램 기획과 관련하여 다수의 “지역별 인문학 거점 도서관”을 지정하고 이곳을 통해 인문학 담당 사서들간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네트워크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거점 도서관이 되어 해당 지역의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과 기획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나 사업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과 관련하여 반드시 강조해야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기획’과 ‘열정’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획은 바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열정을 실

4) 참고로 현재 기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설명회, 워크숍, 시행된 사업들의 사례가 담긴 결과보고서의 배포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는 지역의 인문학자나 인문학 연구기관과 연결되어 기획과 진행에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다.



현하기 위한 계획일 뿐인 것이다. 현장 도서관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다면, 비록 인문학에 대해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인문자원들과의 연결을 통해(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서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핵심은 이러한 열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경험을 확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서관 현장은 과연 이러한 열정을 보장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 도서관 인프라는 매우 후진적이며, 특히 사서의 배치율이 매우 낮아 질높은 도서관서비스를 보장하기 어렵다. IFLA(세계도서관협회연맹)에서 제시하는 사서 1인당 봉사 대상인구가 2,500명인데 비해, 우리는 평균 14,716명(2012년 기준)이다. 사서직의 배치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도서관에 부여되는 프로그램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에, 현장에서의 고충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장사서들에게 열정과 보람을 말하며 충실한 기획을 요구할 필요도 있지만, 그 열정이 나올 수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장해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매년 지적되는 프로그램 주제의 다양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기획자의 입장에서 역사나 문학의 주제는 기획하기 쉽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사회의 이슈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준비하기에도 힘이 들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하여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다. 현장 사서의 고민이 필요하지만 또 사서들의 여건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책임기의 일상화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의 깊이나 성과와도 연결된다. <길 위의 인문학>은 ‘재미있는 인문학’과 ‘깊이 있는 인문학’을 함께 추구하는데, 자칫 책임기나 사전 공부 등에서 소홀하면, ‘깊이’는 없이 ‘재미’만 남는 유희적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역시 ‘어떻게’이다. 가장 좋은 것은 프로그램 참여 신청시 선정된 책의 독후감을 받는 등 책임기를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만, 이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해 참여자의 폭을 좁힐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책임기가 일상화되면서 프로그램의 깊이를 보장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의 발전이나 인문정신의 확산을 위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이 인문학의 학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도서관은 시민들의 인문정신을 확산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인문정신 확산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도서관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대학의 그것과 차별화 될 필요도 있다. 대학의 강단을 도서관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인문학프로그램 속으로 대학의 연구자들을 흡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논의를 양망(仰望)한다.



메 모

.....

.....

.....

.....

.....

.....

.....

.....

.....

.....

.....

.....

.....

.....

.....

.....

.....

.....

.....

.....



메 모

.....

.....

.....

.....

.....

.....

.....

.....

.....

.....

.....

.....

.....

.....

.....

.....

.....

.....

.....

.....



메 모

.....

.....

.....

.....

.....

.....

.....

.....

.....

.....

.....

.....

.....

.....

.....

.....

.....

.....

.....

.....



메 모

.....

.....

.....

.....

.....

.....

.....

.....

.....

.....

.....

.....

.....

.....

.....

.....

.....

.....

.....

.....



메 모

.....

.....

.....

.....

.....

.....

.....

.....

.....

.....

.....

.....

.....

.....

.....

.....

.....

.....

.....

.....

우리동네 도서관에 물어보세요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 280개 도서관에서
동네사람들을 위한
강연과 토담방을 준비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www.libraryonroad.kr

토담방로 떠나요!

도서관에서
이웃들과
동네토담방을
떠나요!



강연듣기

YouTube와
네이버 티비캐스트에서
길 위의 인문학을
검색하면,
문학, 역사, 철학,
자연, 예술에 대한
다양한 강연들을
들을 수 있어요!



EBS 길 위의 인문학



KBS 세상을 바꾸는 생각,
후마니타스



140여편의 강연 영상

토담방코스찾기

길 위의 인문학따라 여행하기!
블로그를 통해 탐방 사진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blog.naver.com/libonroad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을
검색하세요.

우리동네 도서관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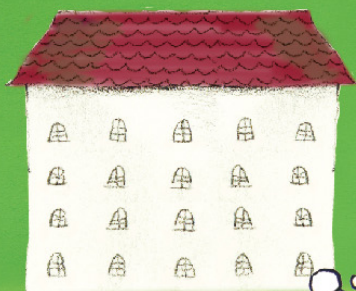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기원의**
인문학

도서관과 도서관인, 이용자와 함께하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생각을 함께하며, 정보공유를 함께하며, 소통을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한국도서관협회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망

● 발 행 일 2015년 10월 22일

●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

전화 : 044.203.2617 전송 : 044.203.3470

한국도서관협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35.4868 전송 : 02.535.5616

홈페이지 : <http://www.kla.kr> | <http://www.libraryonroad.kr>

● 인 쇄 (주)계문사 02.725.5216